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1호 HYUNBULNEWS.COM 2026년 8월 26일(음력 7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더욱 풍성해진 국중박 분장놀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8월 14일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의 본선 진출작 50팀을 발표했다. '국중박 분장놀이'는 우리 문화유산을 분장과 의상, 퍼포먼스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국민 참여형 국립박물관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참가작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선발된 50팀은 오는 9월 지역 본선과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결선을 통해 대상 등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사진 왼쪽부터 본선 진출작 청동공양탑, 부처, 반가사유상, 부처, 중흥사지 쌍사자 석등. **글=신중일 기자 ·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중생 편안하게 하는 수행자 되길"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오는 8월 27일(음력 7월 15일) 병오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려 중생 교화에 매진하는 수행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종문(宗門)의 수행자들이 정법안(正法眼)을 갖추었으니 온 국토의 경사요 만 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고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종사는 이어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을 향해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는 어떤 향기를 전해줄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투쟁이 견고한 세상에는 어떤 방편을 보일 수 있으며, 가뭄과 더위와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수행을 점검하고 "걸음 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오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5개 선원(총림선원 5곳, 비구선원 61곳, 비구니선원 29곳)에서 총 1738명(총림선원 199명, 비구선원 1041명, 비구니선원 498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내영 기자

38대 집행부, 불교 미래 설계해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⑤ 차기 집행부 과제

전통사찰 · 문화유산 규제 개선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마련
미래세대 · AI시대 포교 전략

특별취재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종단 발전과 중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종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 후보가 중점 종책으로 제시한 교구자치 실현과 승가복지 구축,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 외에 38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전통사찰 규제 개선

차기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는 전통사찰을 둘러싼 각종 행정 규제 개선이다.

현재 상당수 전통사찰은 실제 경내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남아 있어 전각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법해석이나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

차기 집행부는 개별 사찰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전통사찰 경내지 건축물의 종교 목적 사용에 대한 합법화 기준을 마련하고, 지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전통사찰 지원과 문화유산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이후 급증한 사찰 방문객에 대한 대책도 과제다. 방문객 증가로 발생하는 주차·화장실·안전관리 등 공공 서비스 부담을 사찰이 상당 부분 떠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방문객 규모를 반영한 보전금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문화유산 보수 예산 축소로 국보·보물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정비 예산 확대와 비지정 문화유산 지원 조례 제정 등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출가 감소 · 승가 고령화

승가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도 주요 과제다. 승가복지는 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전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가 초기의 교육에서 수행, 주거, 의료, 노후와 요양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관건은 재원이다. 수행비 지급과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앙종단과 교구본사의 재정 구조를 함께 살피고,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출가정책도 복지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7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소년출가제도와 단기출가학교, 종립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최근 젊은 출가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장기 출가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단기출가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출가 인재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미래세대 포교

저출생과 탈종교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청소년 포교는 선택이 아니라 종단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학교와 대학, 청년공간, 지역사찰,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맞춤형 포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불교를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포교 방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중앙종단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찰이 지역 여건에 맞는 포교를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중앙은 기획·지원·평가를 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포교 전략도 시급하다. 불교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신행·명상·교육·상담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불교적 관점에서의 AI 윤리 논의도 종단 차원에서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3면에서 이어짐〉

총무원장 선거 후보 전원 '자격 이상 無'

조계종 중앙선관위, 8월 19일 만장일치 결정

경우 · 정념 스님, 규탄 성명
진우 스님 "비방에 강력 대응"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스님, 정념 스님, 진우 스님(기호순) 모두 자격심사를 통과해 후보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4차 회의를 열고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입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위원장 태성 스님은 "후보자의 신원조회는 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총무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고, 세 분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심사 결정에는 후보 간 반응이 엇갈렸다. 경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세간에 의혹이 제기됐다면 허위임을 명백히 밝혀 대중의 혼란을 막거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간과 조직은 운영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를 은폐하기보다 정직하게 재평가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불교 종단의 본분"이라고 촉구했다.

정념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관위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한 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심사는 검증 기구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이자 종도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짓밟은 폭거"라고 힐난했다.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진우 스님 선대위는 "선관위 심사 결과는 진우 스님의 승적에 이상이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우 스님의 승적을 문제 삼는 행위는 중앙선관위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것으로, 후보 스님에 대한 흑색선전에 강력하게 대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어 전문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 1
경우스님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습니다

수행과 전법,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종단을 세워,
조계종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수행 지원 체계 확대, 시대정신으로 거듭나는 수행가풍
2 종단 도약의 초석, 교구 중심제 실현
3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형 종단 구현
4 콘텐츠로 빛나는 K-불교문화 르네상스 실현
5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불교 구현
6 수행과 전법의 주역, 당당한 비구니 승가
7 청년은 꿈꾸고 불교는 세계로 'K-불교의 비상'
8 현장 중심의 전법체계 구축
9 평생 수행의 버팀목 승가복지 강화
10 당당한 불교로 국가와 사회 잇는 상생 모색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8월 14일 함께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8월 12일 통도사에서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후보자들 전국 누비며 '종책 경쟁'

종정 성파 스님 예방 시작으로
2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돌입
사부대중 만나 '종단 발전' 다짐

특별취재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해 가르침을 청한 데 이어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을 찾아 종책을 설명하고 종단 발전에 진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후보 등록 직후인 8월 12일 통도사를 찾아 성파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스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해 온 내용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를 잘하겠다는 원력을 내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에 성파 스님은 "수고하시겠다. 잘했다"며 "열심히 성취하도록 하라"고 진우 스님의 원력을 응원했다.

성파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방과 갈등에 대해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가물 때도 있는 법이다. 비방은 거품처럼 올라오다 금방 꺼지는 것이니 괜찮다.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도 8월 14일 통도사를 찾아 성파 스님을 예방했다. 두 스님은 함께 예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종책이나 종단이 지향하는 바에 공통점이 많아 뜻을 모았다"며 "아울러 요즘 말하는 '단일화' 과정을 앞으로 잘 조율해 종단 발전과 미래 희망에 기여하고 선거를 원만하게 치러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파 스님은 선거의 부작용을 경계하며 종단의 화합을 최우선 덕목으로 강조했다. 스님은 "선거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로 인해 폐단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안팎으로 국태민안이 염려되는 어려운 시국에 불교계마저 화합하지 못하면 종단과 불교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쟁은 하되 과열되어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경책했다.

이어 두 스님은 용인 반야선원에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예방했다. 자광 스님은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종단을 이끌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라고 격려했다. 또 서울 법룡사에서 열린 전국비구니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각각 비구니 스님 관련 종책 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8월 15일 진안 금당사를 찾아 전 총무원장을 지낸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운영 경험과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다. 이어 전주 서고사에서는 화평 스님을, 정읍 내장사에서는 대우 스님을 만나 종단과 사찰 간 소통과 협력, 지역불교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개운사를 찾아 승가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비롯해 승가교육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념 스님은 이후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종도들과 만나며 자신의 종책과 종단 운영 구상을 설명하는 등 표밭 다지기를 이어갔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8월 14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 설법전에 마련된 일하당 무공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전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주지 선광 스님, 문도 스님들을 위로했다.

이후 전국 교구본사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등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종책과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8월 20일에는 전국비구니회와 간담회를 갖고 종단 현안과 비구니 승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세 후보는 선거일 하루 전인 9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불교광장 "의혹 아닌 정책으로, 갈등 아닌 화합으로"

8월 19일, 입장문 발표
"비전·종책으로 경쟁해야"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3명 모두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종단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광장은 8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우·경우·정념 스님 등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른 적격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 내려진 종단 최고 선거관리기구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판단"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종단의 법통과 권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불교광장은 "이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 소모적인 네거티브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미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종단의 공적 제도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대중의 화합을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정책으로, 갈등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후보자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종단 발전을 위한 비전과 종책으로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전국비구니회 '참종권 확대' 종책 제안

후보자 초청 간담회서 제안서 전달
"교역직 참여 확대…선학원 해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강화와 종단 운영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종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종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차기 집행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종책제안서에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보유한 모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종단 운영에 반영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행·교육·포교·복지·행정 등에서 역량을 키워온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종단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종책으로는 △총무원 행정기구 참여 확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석수 확대 △종단 차원의 복지체계 구축 △선학원과의 관계 회복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종책 실현 방안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부 신설보다는 현 총무원 주요 보직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 선거인단 20% 이상을 비구니로 구성하고, 종단 및 대외협력 위원회에 비구니 참여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앙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비구니 직능 선출위원이 비구니 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승려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종단에서 승가공동체(실버타운)를 설립하고,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선학원과의 관계 회복도 요청했다. 비구니회는 '법인법'에 따라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선거권 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후보자 초청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회장 광용 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회 운영위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8월 14일에는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두 후보자는 각각 비구니 스님 관련 종책 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경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 종단 운영의 당당한 한 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며 "오늘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종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출가자 감소 시대에 종단 발전과 전법을 위해서는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종단 운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비구니회와 협의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8월 14일 개최한 경우 · 정념 스님 초청 간담회(사진 왼쪽)와 8월 20일 진행한 진우 스님 초청 간담회 모습.

8월 20일에는 기호 3번 진우 스님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소신을 늘 갖고 있었다"고 공감을 표하며 "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종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취지를 잘 설명해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용 스님은 "후보자 스님들이 관련 공약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38대 집행부가 수행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 박지운 기자

3보에 귀의합니다.
3공(공의, 공감, 공심)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호 3번 진우입니다.

佛敎中興, '시작된 변화, 도약의 완성'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호 3
진우스님



조계종연구소 “전문인력 확보 시급”

8월 19일, 싱크탱크 역할 모색
중장기 종책·현안 연구 등 제시
이명호 발제·묘장 스님 등 토론
“연구결과 종책화 환류체계 제도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연구소는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단 싱크탱크로서의 종책연구 방향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 결과를 종책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계종연구소는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단 싱크탱크로서의 종책연구 방향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재영 성철선사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연구소가 종단 싱크탱크로서 수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운영체계 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조계종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가: 종단 싱크탱크로서 종책연구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종단 싱크탱크로서 조계종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소장은 종교단체의 정책 개념과 유형,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의 일반 원리, 종교단체의 조직 성격에 따른 종책개발 방식의 차이 등을 살펴본 뒤 종단 종책연구의 현재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고 연구소의 연구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조계종연구소의 연구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종단 정체성과 중장기 종책 연구다. 종단이 계승해 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수행 전통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단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다.

둘째는 조사·통계·데이터 기반 종책 연구로, 종단 내부의 현황과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증거에 기반한 종책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 현안과 대사회적 의제 연구다. 불교가 지닌 가치와 지혜를 오늘날 사회가 겪는 고통과 공공문제에 응답하는 연구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소장은 연구 방향을 실제 종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원 중심의 연구소에서 벗어나 연구수행 중심 조직으로 정비하고 상근 연구인력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결합한 인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연구 방향이 구체적인 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행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조사와 통계 관리, 외부 연구의 품질관리, 종책화와 환류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결과가 총무원 각 부서와 종무회의, 중앙종회를 거쳐 종책으로 연결되고 교구본사와 말사 현장에서 실행된 뒤 다시 연구소로 환류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 내부와 외부 전문가, 교구 현장, 학계와 시민사회를 잇는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연구 결과물 및 연구소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종책 분석 역량은 조사·통계·데이터 기반 연구로, 종책 운영 역량은 종무기관과 교구본사·말사의 연계로, 종책 조정 역량은 종무회의·중앙종회·교구 현장 간 환류 구조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현재 종단 종책연구의 구조적 한계로 연구기능의 분절과 지속성 부족, 전문 연구인력 부족, 조사·통계·데이터 기반의 취약성, 정책 환류체계 부족, 협력 네트워크 미정립 등을 꼽았다.

이 소장은 “조계종은 장자종단으로서 한국불교와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엄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설립이라는 제도적 출발을 넘어 실질적인 싱크탱크로 기능할 수 있는 연구 역량과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종단적 위상, 사회적 소통과 공적 역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 ‘조계종연구소의 조직구성과 운영체계’를, 동국대 WISE 책임교수 법장 스님이 ‘조계종연구소의 종단적 위상과 역할’을,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사회적 소통과 공적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첫 ‘올해의 명상인 상’ 후보자 공모

‘2026 세계명상의날’ 기념
명상 대중화 기여 개인·단체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6 세계명상의날’을 기념해 명상의 대중화와 가치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2026 올해의 명상인 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17일까지로, 명상 대중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직접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주요 활동과 업적, 명상 대중화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한 내용 등을 후보자 추천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공적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0mi1995@wehago.com) 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2층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올해의 명상인 상’을 제정했다. 명상이 개인의 치유와 수행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연대로 확산되고 있는 데 주목해 다양한 분야에서 명상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조명한다는 취지다.

‘세계명상의날’은 2024년 12월 유엔(UN) 제79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된 국제기념일이다.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는 명상의 가치에 공감하는 국내 단체와 개인들이 뜻을 모아 2025년 출범했으며, 매년 세계명상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명상에 대한 관심은 종교와 이념, 세대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에는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 같은 명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명상의 가치를 확산한 활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시상식은 12월 20일 열리는 ‘2026 세계명상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seonmeditati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환경 · 남북 등 사회적 과제 대응
차별금지법 · 종교편향 장기 종책

불교문화 정책 전환

불교문화 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사찰음식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무형유산 보호, 비지정 성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등 불교문화의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종단과 개별 사찰만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업 등도 차기 집행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기후위기 · 환경문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의 생명존중과 연기적 세계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특히 사찰과 산림, 수행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불교 내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차기 집행부는 사찰의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사찰 조성, 생태교육, 일회용품 감축, 사찰림 보전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나아가 불교계 환경단체와 사찰,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전국적인 불교 환경운동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불교 교류 재개

남북불교 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불교문화유산과 인도적 지원조차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강산 신계사 복원으로 상징되는 남북불교 교류의 경험을 계승하고, 북한에 산재한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역시 국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재외동포사회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남북불교 교류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축적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조계종은 그동안 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불교의 자비와 평등 사상을 사회적 실천으로 구현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가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연구 등 입법 사례와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연구하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차별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오늘의 사회문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종교편향 대응

종교 간 갈등이나 종교편향 논란이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종교 중립 원칙을 점검하고 종교편향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평화위원회가 제안한 ‘종교 간 차별 점검 TF’와 같은 기구를 공식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서산 해미읍성, 홍성 홍주읍성과 같이 특정 종교 중심으로 성지화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기호 2번 정념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종도들의 여망을 받들어
불교중흥에 진력하겠습니다



정념스님 선거대책위원회

불교계, 거제 수해 현장에 '자비 손길'

더프라미스, 8월 18~21일 점검
복지재단, 둔덕면에 키트 200개
나누며하나되기, 3000만원 물품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가 8월 19일 거제 둔덕면 하둔리 마을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 제공=더프라미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20일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키트 200개를 둔덕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사진 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광복절 연휴 기간 남해안을 덮친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에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현장 점검과 구호 활동에 나섰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극한 호우가 이어지며 주택·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거제에는 954.8㎜, 통영에는 763㎜로 시간당 10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며 이례적인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거제 옥포동에서는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집중호우 직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거제 피해 현장에 재난복지팀을 파견했다. 재난복지팀은 현재 피해 상황과 현장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더프라미스 현장 조사에 따르면 장목면에서는 주택 다수가 침수하고, 둔덕면에서는 도로 아스팔트가 들뜨고 장애물이 많아 긴급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제면에서는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서 정전·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토사 유출 등으로 전통시장과 상가에서는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복지팀은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지역 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거주시설과 대피소를 방문하고, 거제시자원봉사센터·노인통합지원센터 등 피해 복구에 나선 기관들을 차례로 찾아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전달받고 현장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각 구호 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이어나갔다. 8월 19일 둔덕면 하덕리에는 침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비롯해 음료·간식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식료품 키트를 구성해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묘장 스님은 "경북 안동과 의성에 이어 경남 거제와 통영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재난 현장을 놓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살폈다. 거제 인근 거창 지역의 재단 산하시설인 거창군삶의쉼터 회원들도 현장 피해 조사에 함께했다.

재단은 8월 20일 피해 규모가 큰 둔덕면 일대에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키트 200개를 둔덕면사무소에 전달했다. 물품은 세면도구, 물티슈, 슬리퍼, 양말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재단 후원단체인 매일유업도 둔덕면 주민들을 위한 우유 2016개(24입 84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륜 스님은 "재단은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구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거제·통영지역의 수해 복구와 수해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6-6410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진철 스님)는 8월 25일 거제시청에서 '거제시 수해민 긴급구호 물품 전달식'을 열고 3000만원 상당의 건강·방역·생활물품을 지원했다.

기자칼럼

불교음악,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미술관에서 불교음악이 울려 퍼진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리움미술관에서 한국전통음악 프로젝트 'The Authority'의 일환으로 8월 29일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공연이, 'The Signature' 시리즈에서는 9월 20일 정각 스님의 범패승 전통음악 공연이 열린다. 사찰이 아닌 미술관에서 불교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불교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미술관에 마련됐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소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일상에서 불교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클래식 음악은 공연장뿐 아니라 방송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공연을 찾아가고 해설을 듣고 악기를 직접 배우기도 한다. 자주 듣고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음악도 어느새 익숙해진다.

불교음악은 조금 다르다. 범패를 비롯해 법고와 바라 등 전통 불교음악은 사찰의 의례와 수행이라는 특별한 공간과 맥락 속에서 전승돼 왔다. 사찰을 자주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용어와 생소한 형식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법고를 두드리고 바라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울림이 마음을 붙잡는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법음이 의례의 순간에만 울리고 사찰 안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더욱 아쉽다.

이제 불교음악도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란다. 사찰을 넘어 공연장과 미술관, 문화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불교행사가 있을 때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낯선 음악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연장을 찾을 수 있다. 한 번 듣고 또 듣다 보면 낯섦은 익숙함으로 바뀐다. '이 음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불교문화와 사찰을 알아가는 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리움미술관 공연 이후 불교음악을 접할 기회가 꾸준히 늘어났으면 한다.

언젠가는 불교음악을 공연장에서 만나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소식이 아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지운 편집국 기자

'불교영화제' 후반기 여정 시작

2026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9월 현덕사·관음사·조계사서



7월 31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2026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모습.

전국 산사를 무대로 불교영화와 사찰문화가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후반기 여정을 시작한다. 여행과 공연, 캠핑, 창작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낙산사·현덕사·관음사·조계사에서 영화제가 펼쳐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주관하는 '2026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이하 OIBFF)'가 7월 평창 월정사에서 시작한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후반기에도 전국 주요 사찰을 찾아 상영을 이어간다.

첫 후반기 행사는 8월 22일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파도 위의 서핑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열렸다. 동해에서 서핑을 즐긴 뒤 산사에서 하루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저녁에는 가수 하림의 라이브 공연과 영화 '더 컵(The Cup)' 상영이 진행됐다.

9월 5일에는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에서 1박 2일 '금강송 솔숲 캠핑 & 스테이'가 펼쳐진다. 가족캠핑 6팀과 솔로캠핑 8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맛있는 절밥과 사찰의 커피를 즐긴 뒤 오후 7시 자갈마당에서 영화 '절해고도'를 관람한다.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에서는 9월 13일 어린이들이 산사를 직접 걷고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 하나의 연극으로 만드는 '관음사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이들은 일주문과 평화대불, 미륵대불, 관음굴 등 관음사의 여러 공간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스토리와 장면으로 발전시켜 직접 무대에 올린다. 저녁에는 별빛 아래 모기장을 펼쳐놓고 영화 '더 컵(The Cup)'을 감상하는 '모기장 영화상영'이 이어진다. 영화제측에서는 아이들이 사찰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공연하는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다.

영화제 후반부 마지막 무대는 9월 18일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장식한다. 대웅전 마당에서는 개막 공연과 영화 '절해고도' 상영이 진행된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조계사 전통마당에서는 불교박람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다양한 불교 굿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팝업도 열린다. 박지운 기자



복날, 사찰음식으로 '생명 · 환경' 살피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8월 14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초복부터 한 달간 진행해 온 '2026 복날채식캠페인'의 마지막 활동으로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하남 상불사 회주 동효 스님의 지도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함께 공양하며 생명존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현희 기자

불교여성硏 '번뇌 해부서 해독으로' 강좌

8월 21일~10월 2일, 매주 금요일
불교여성개발원서 총 6회 진행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선숙)가 뇌과학과 철학을 통해 현대인의 번뇌를 이해하고 불교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대련) 산하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기향)이 주최하고 불교여성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강의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25일 추석연휴 제외) 3시간씩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2층에서 6주간 진행된다.

'번뇌의 해부에서 해독으로' 프로젝트는 불교를 신앙이나 이론이 아닌,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지혜로 되살리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불교 교학·명상·뇌과학·철학을 연결한 융합 교육과 강의 실천을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배움을 습득한다. 체크리스트와 실천 일지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스스로 번뇌를 이해하고 전환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강의는 철학과 불교, 뇌과학, 명상 등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맡는다.

8월 21일 이정우 소운서원 교수가 '삶의 기예로서의 철학'을 강연하며 강의의 첫 문을 열었다. 이어 △8월 28일, 유식불교와 마음(박재용 동국대 교수) △9월 4일, 마음공간의 계층구조와 깨달음의 길 : 무명에서 지혜로, 붓다의 통찰과 뇌과학(문일수 동국대 교수) △9월 11일, 12연기와 위빠사나(한국명상원 묘원법사) △9월 18일, 부처님의 번뇌 다스리는 법 활용하기에(백경임 동국대 교수) △10월 2일, 아비담마의 인식과정과 업의 형성, 예측하는 뇌와 감정의 과학 : 선과 위빠사나를 통한 분노·중독의 해독(김선숙 불교여성연구소장) 등이 마련된다. 02-722-2101 박지운 기자

'나는 절로', 공주서 청춘 만남 장 연다

9월 19~20일, 한국문화연수원서
8월 31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이번에는 수도권 청춘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나는 절로, 한국문화연수원' 참가자를 모집한다.

종교에 관계없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2030세대 미혼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남녀 각 10명씩 총 2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8월 31일 오전 10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조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출생 문제 대응 일환으로 기획된 '나는 절로'는 매회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며 2030세대의 대표적인 만남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는 절로'를 통해 5쌍의 커플이 결혼했으며, 현재 7쌍의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나는 절로'에서 결혼한 커플의 아기가 처음 태어나기도 했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한국문화연수원은 태화산 자락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매년 5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과 명상을 경험하며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참가자들이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며, 좋은 인연을 맺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6334-2217 이현희 기자

사노위, 폭염 속 숨진 이주노동자 추모

8월 12일, 여주 사고 현장 찾아
"이주노동 정책 근본 전환 필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8월 12일 여주시에서 폭염 속 밭일을 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사노위에 따르면 고인은 4남매를 둔 라오스 국적 여성으로, 계절근로자(E-8) 비자로 8월 5일 입국했다. 고인은 입국 바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가남읍 오산리 밭에 투입돼 단호박 파종과 흙 덮기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휴식을 취하던 중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8월 7일 저녁 무렵 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여주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으며, 비닐 작업 특성상 지열과 복사열을 고려한 체감온도는 45도 이상에 달한 것으로 사노위는 파악했다.

사노위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폭염 속 휴식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짚었다. 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체감 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고인이 실종된 이후에도 함께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밭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여주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노위에 따르면 여주시는 라오스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상·하반기 1900여 명의 계절노동자를 유치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여주시청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이날 사노위 스님들은 고인이 일했던 밭과 머물렀던 숙소,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차례로 찾아 향을 사르고 염불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사노위는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정 처벌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현실을 막을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희 기자

“광복 만세!”…청년 불자 독도서 평화 외치다

동국대, 울릉도 · 독도 탐방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진행돼
동국대+18개교 40명 동참해
“삶은 같다” 서로 이해 ‘눈길’
남북 대학생 교류의 장 확대
개교 120주년 맞아 의미 더해

울릉도=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울릉도 · 독도 탐방’을 개최했다. 사진은 독도에 입도한 탐방단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모습.



광복절을 맞은 독도는 곳곳이 태극기로 장엄됐다.



돈관 스님이 소참법문을 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이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만세! 동국대 만세! 무이판사판 만세! 8·15광복 만세!”

북한 출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들이 한반도 동쪽 끝 독도에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간절한 서원을 우렁차게 외쳤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울릉도·독도 탐방’을 개최했다.

광복 81주년과 개교 120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을 비롯해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무(無)이판사판’ 회원 40명,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전법특임교수 및 회장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탐방에는 동국대 이외에도 무이판사판 회원으로 활동하는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 18개 대학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無이판사판, 탈북민 포교 새 장

북한 출신 대학생 연합 불교동아리 ‘무이판사판’은 지난해 9월 23일 동국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24개 대학 학생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됐다. 초대 동아리 회장은 김지일(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맡았고, 지도법사에는 정현 스님, 지도교수에는 이해님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첫 북한 출신 대학생 연합 불교동아리인 만큼 동아리 명칭도 돈관 스님이 직접 지었다.

동국대는 2022년부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통해 북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울릉도·독도 탐방을 진행하며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현재 ‘무이판사판’에는 1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법회와 자율법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佛法 만난 우리는 귀한 인연

8월 15일 새벽 울릉도 사동항에 입도한 대학생들은 거북바위, 예림원, 나리분지 등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만끽했다. 추산 성불사에서는 탐방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다.

돈관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우며, 좋은 인연의 참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人身難得 佛法難逢 好人難遇)’는 불교 경구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인신난득·불법난봉·호인난우’라는 경구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오늘 여러분이 성불사 법당에 앉아 법문을 듣는 것도 귀한 인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먼 곳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좋은 인연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참석한 대학생들은 함께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다. 대학생들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희 북한이탈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난날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과 희망으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개척하며,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게 해달라”며 “오늘 맺은 인연이 남과 북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자비의 다리가 되고,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평화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서원했다.

올해도 독도 접안 성공…“대한민국 만세”

이번 행사의 백미는 독도 탐방이었다. 독도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울릉도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 40여 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독도는 기상이 좋고 바다가 잔잔해야 접안할 수 있다. 실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150여 일. ‘독도 입도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이동한 제15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접안에 성공하면서 참가자들은 독도 땅을 밟았다.

독도에는 광복절을 맞아 탐방로 곳곳이 태극기로 장엄돼 있었다. 동국대 탐방단은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독도와의 만남을 기록했다.

돈관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사히 독도에 올 수 있어 다행이다. 특히 올해는 동국대 학생들과 서울·수도권 대학 학생들,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장들이 함께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가 남북 평화에 대한 인식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탐방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웅 총장은 “사람은 같이 먹고 자야 친해진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인 ‘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해 스님께서는 ‘평화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셨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에서 북한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설계하고 진로를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가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채윤서 전 ‘무이판사판’ 부회장은 “지난해 탐방 이후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무이판사판’이 창립됐고, 올해에는 광복절을 맞아 다시 독도를 찾게 돼 뜻깊다”며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다. 공동의 의제를 찾아가며 상호 공존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연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회장은 남북한 학생들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고 탐방의 의미를 전했다. 문 회장은 “하룻밤 동안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 사는 것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사실 학교에서도 북한 출신 친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 거리감을 크게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무이판사판’ 지도법사 정현 스님은 “광복절인 만큼 동아리 회원들의 마음에도 빛이 왔으면 한다”며 “불교동아리이기는 하지만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으며, 대학원을 다니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학생도 많다. 오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을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이판사판’은 딱딱한 불교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불교를 지향할 것”이라며 “연합법회를 통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과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어사 선명상 축제, 바다·AI 만나다

9월 5일 '범어사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

'부산형 K-웰니스' 지평
일출 SUP 명상 등 다채
'선명상 콘서트'도 '주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 가 오는 9월 5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및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범어사 비오마인드가 진행한 템플레킹에 참여한 부산 시민들이 명상을 하는 모습.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의 선명상이 부산 광안리 바다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가 주관하는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가 오는 9월 5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및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축제 주제는 '금정산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 푸른 숨, 깊은 쉼'이다.

현대인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왔던 사찰의 선명상을 자연, 음식, 음악, 예술 등 일상적인 요소와 결합해 대중성을 높였다. 특히 금정산의 고즈넉한 숲과 광안리의 역동적인 바다를 하나의 수행 동선으로 연결하며 '부산형 K-웰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축제의 백미는 공간을 넘나드는 '크로스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이른 새벽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패들보드(SUP) 위에 누워 파도와 일출을 느끼는 'BEO Floating(일출·SUP 명상)'이 진행된다. 바다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은 참가자들은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금정산 범어사로 이동해 본격적인 산사 명상을 이어간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마음처방전'도 단연 눈길을 끈다. 참가자가 자신의 성향(MBTI)과 현재의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24가지 마음 유형 중 하나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처방을 제공한다. 처방전에는 적합한 선명상법과 차, 향뿐만 아니라 불교적 지혜가 담긴 '나만의 화두'가 포함된다. 단순한 기술 체험을 넘어, 발급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님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오후에는 범어사의 독자적인 웰니스 브랜드 '비오마인드(BEO Mind)'를 다각도로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사찰음식 공양을 시작으로 푸드테라피, 슬리핑 소리명상, 숲길 걷기명상 등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선명상을 특정한 형식이나 공간에 가두지 않고 누구나 친숙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 문화로 확장하려는 원력이 담긴 기획이다.

축제의 대미는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선명상 콘서트 '마음이 머무는 밤'이 장식한다.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맑은 음성과 클래식 연주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스님의 법문과 명상 지도가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바다 위에서의 호흡부터 산사에서의 걷기까지, 멈춤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범어사의 1300년 수행 전통과 금정산, 광안리라는 부산의 자연환경을 융합해 한국을 대표하는 선명상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 언해불서, AI 입고 K-컬처로 도약한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8월 13일
아카이브 사업 성과 발표 학술대회
시맨틱맵 시연·AI 서사 영상 공개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는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한글 불교 문헌들이 첨단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만나 전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일환)는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 동국대, 통도사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글 너머 온(On), 불(佛)을 켜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년간 축적된 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화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과 학계 전문가,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전통 문헌의 현대적 변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파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계가 한글 창제와 보급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짚었다.

성파 스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이전부터 이미 불교계 내에 불전 언해 작업이 존재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한글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가 공헌한 바를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사업은 세종에서 성종 대에 간행된 〈석보상절〉 등 언해불서 18종 88권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지식 정보화 프로젝트다.

학술대회 1부 성과 보고에서 하정수 총괄팀장은 2년 차 사업을 통해 신번역 8종 23권 및 서지 조사 정밀 촬영 7종 33권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데이터의 시각화 및 영상화 결과물이었다. 통도사와 서울 미타사가 보유한 문헌과 유물 정보를 의미망으로 엮어낸 '시맨틱맵'이 시연됐고, 〈월인석보〉 권8의 '안락국태자경' 서사를 생성형 AI로 구현한 2분 분량의 영상물이 최초로 공개돼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서는 고문헌을 디지털 지식으로 변환하는 세부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최애리 박사가 15세기 불교한글 문화유산의 지류 물성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김소정 박사는 목판과 금속활자 등 인쇄 방식의 차이가 AI 광학문자인식(OCR) 판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소리 박사는 방대한 불교 문헌을 AI 기반 지식정보 아카이브로 구현하는 실질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2년 차 인프라 구축을 발판 삼아 3년 차부터는 대중 참여형 프로젝트로 외연을 확장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유입을 위해 '제1회 대학생 불교한글문화유산 활용 AI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진이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작자들이 숏폼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을 자유롭게 제작하게 함으로써 플랫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불교문화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집에 가기 아쉬워요" 홍법사 어린이 단기출가

8월 13~15일, 초등학생 26명 참가
심산 스님 "행복 위해 배려 배워야"
청년 선명상·어린이 영어캠프도



홍법사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경내에서 '제15기 어린이 작심단기출가' 를 진행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다양한 수련회와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법사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경내에서 '제15기 어린이 작심단기출가'를 진행했다.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작은 수행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단기출가에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26명이 참가했다.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사찰에 머물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비심을 다졌다.

입재식에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법문으로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심산 스님은 "작심(作心)이란 마음을 짓는다는 뜻으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세우고 끝까지 정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잘 노는 것도 공부이며, 나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사찰 일상 속에서 어린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및 명상 활동으로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사찰예절 습의를 시작으로 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음지도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았다. 이어 마음챙김 108배와 아로마 향기명상, 싱잉볼 자비명상에 참여하며 명상을 체험했다.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이어진 다음날에는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잔디마당 걷기명상, 찬불가 및 싱잉볼 연주 창작, 잔디마당 물놀이, 전통 발우공양, 원예공예 '마음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사찰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알아차림 먹기명상'과 주지 스님과의 차담, 싱잉볼 사운드테라피를 진행하며 2박 3일간의 여정을 회향했다.

일정을 마친 어린이들은 "사찰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할 만큼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홍법사는 8월 21~23일에도 2박 3일간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2026 대학생 선명상' 수련회를 개최했다.

8월 22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 해군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도 열렸다. 이번 영어캠프는 미 해군 참가자 28명이 함께하며, 영어 학습과 문화교류를 결합한 체험형 캠프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교사 마음 돌볼 때 교육 힘 깊어져"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제5회 교사직무연수 개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제5회 교사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2박 3일간의 집중 교육과 후속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괜찮지 않아도 돼!'라는 주제에는 학생과 학교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은 뒤로 미뤄왔던 교사들에게 스스로의 마음부터 돌아보자는 의미가 담겼다.

첫날에는 '고정관념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괜찮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나 찾기', '마음을 여는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마음의 활용과 원리', '무지의 자각',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등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특히 촛불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본래 갖춰진 밝은 마음을 되새기고, 마음의 평온과 알아차림을 일상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새겼다.

셋째 날에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변화하는 나 찾기' 등을 통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익혔다. 또 '실천 나누기'에서는 마음공부를 학교와 가정,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각자의 실천 방향과 다짐도 함께 공유했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때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교육의 힘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교육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천만사, 한국불교 세계화 앞장

스리랑카·에티오피아 대사 초청
"국경 넘어 우호·평화 이어가길"



울산 천만사(주지 향덕 스님)가 주한 스리랑카와 에티오피아 대사 일행을 잇달아 초청해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고 국가 간 우호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천만사는 8월 15일 마리무투 카루파야 파뜨마나단 주한 스리랑카 대사 일행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파뜨마나단 대사 일행은 향덕 스님의 안내로 대웅전을 참배한 뒤 경내를 둘러보며 한국 사찰의 전통과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차담을 갖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를 비롯해 문화적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향덕 스님은 "이번 인연을 계기로 한국과 스리랑카가 더욱 가까워지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뜨마나단 대사는 "양국의 우호와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8월 6일에는 데시 달키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와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자녀 등 가족 일행을 초청했다. 두카모 대사 가족은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소원돌 들기와 사찰음식 공양, 인근 편백자연림 산책 등에 참여하며 한국의 사찰문화를 경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포교사단, 범어사 하안거 대중공양

8월 18일, 범어사 공양간서
70일 법화경 독송하며 모연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박종안,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병오년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금정총림 범어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부산포교사단은 8월 18일 범어사 공양간인 상후원에서 병오년 하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이날 대중공양에는 박종안 단장을 비롯한 임원 및 운영위원 15명이 동참했다. 포교사들은 직접 음식을 장만해 스님 100여 명에게 공양을 올렸다.

부산지역단 소속 34개 팀 포교사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70일간 〈법화경〉을 독송했다.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모금함을 설치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중공양을 회향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1년째 이어진 백중 자비나눔

울산 정관암, 8월 19일
어르신 700명에 공양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이 백중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로 21년째 백중 나눔보시를 이어가고 있는 정관암은 8월 19일 울산 북구와 남구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700여 명에게 떡과 두유를 전달했다.

주지 대활 스님은 "백중은 부모와 조상의 깊은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전해지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종사 밝힌 지혜 등불 이어가겠다”

동화사 무공 대종사 영결식
8월 15일 교구장으로 엄수
사부대중 · 지역 인사 애도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전 동화사 주지 일하당 무공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15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제9교구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다비식 모습.

평생을 수행 정진과 후학 양성에 힘쓴 전 동화사 주지 일하당 무공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15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조계종 제9교구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를 비롯한 교구 사부대중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지성 대종사,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 망월사 주지 동진 스님, 철웅문도회 회주 현근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와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강대식·윤재옥 국회의원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대종사가 평생 밝힌 지혜의 등불을 더욱 밝혀 삼천대천세계의 희망과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추모했다.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는 추도법어를 통해 “사생을 일상 중에 잘 지어 갈 것 같으면 여생이 편안하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마음을 밝혀야만 훌륭한 스승, 수행승을 만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날마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동화사는 한국불교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배출된 곳이고 종단이 힘들 때 어른 스님들의 큰 가르침이 있어 버팀목이 됐다”며 “종단 소임자로서 큰스님의 뜻을 받들겠다. 속히 스님께서 다시 돌아와 함께 정진하고 중생제도 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원로 스님들의 모임인 대가회 회장 운성 스님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효광 스님도 추도사를 통해 대종사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효광 스님은 “팔공산의 병풍바위의 호곡 소리와 낙동강의 대한수가 대도의 눈물로 삼가 깊은 추도의 마음을 올린다”며 “와야 할 때 문득 오고 가야 할 때 문득 가니 사숙의 열반 또한 그러하다. 부디 즉득왕생해 변화신을 나투시고 속환사바하시어 광도중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투망금린유체수, 회도석마출사롱’(透網金鱗猶滯水, 回途石馬出紗籠)이라. 그물을 벗어난 금린은 오히려 물에 갇혔는데, 길의 돌말은 뿌리를 벗어났도다”고 게송으로 추도사를 전했다.

능인고에서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도 추도사를 통해 각별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주호영 회장은 “1975년 고등학생 때부터 50년 이상 제자로서 가까이에서 큰스님을 모셔 왔다. 육신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을 느낀다”며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다는 회한에 젖는다”고 말했다.

문도 스님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흔들림 없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문도대표 보정 스님은 “늘 청렴하고 바르게 살라는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끝까지 수행정진하고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청빈·천진으로 걸림 없는 삶”

17일 원적한 청현 대종사
19일 광주 무각사서 영결식
송광사 다비장서 다비 엄수


광주 무각사 회주 중산당 청현 대종사의 영결 다비식이 8월 19일 무각사와 송광사에서 엄수됐다.

8월 17일 원적에 든 중산당 청현 대종사의 마지막 길에 사부대중의 추모가 이어졌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는 8월 19일 설법전에서 ‘회주 중산당 청현 대종사 영결식’을 봉행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조계총림 송광사 다비장 연화대로 이운돼 사부대중의 염불 속에 다비의식이 봉행됐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행장을 통해 청현 스님이 은사 향봉 스님을 비롯한 당대 선지식들을 모시며 수행의 기틀을 다진 뒤 전국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평생 주지 소임을 맡지 않은 채 수행자의 본분을 지켰으며, 80세가 넘어서도 배낭 하나를 메고 세계 각국의 불교성지와 오지를 만행할 만큼 자유롭고 걸림 없는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은 추도사에서 “대종사님은 말씀보다 따뜻한 미소와 행동으로 하심의 가르침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소중한 인연들에게 온정을 나누셨던 보살심을 본받아 후학들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추모했다.

문도를 대표해 상좌 여일 스님은 “평생 검소하고 걸림 없는 수행자의 본분을 보여주신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조계총림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과 주지 무자 스님, 조계총림 대중 스님과 불자들은 연화대 앞에서 청현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현묵 스님은 “청현 대종사께서는 평소에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유자적하게 살아오셨고, 마지막 떠나시는 길까지 사바세계의 모든 집착과 미련을 다 비우고 열반에 드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다시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거룩한 보살도를 성취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스님의 ‘속환사바’를 발원했다.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길이 오르자 대중은 “스님, 불 들어갑니다”를 외쳤다. 이어 ‘나무아미타불’을 한목소리로 염송하며 청현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환사바를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정아 대불청 전주지회장 취임

8월 16일, 전북불교회관서



대한불교청년회 전주지회 신임 회장에 이정아 불자<사진>가 취임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주지회는 8월 16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정아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전주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찾아오면 즐겁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전주지회를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임하는 김대현 전 회장은 “그동안 곁에서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모든 불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평회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전주불교청년회의 무궁한 발전과 봉사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불자가 바로 서야 불교의 미래와 포교가 살아난다”며 “청년회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행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서 펼쳐지는 ‘예술 인드라망’

8월 31일까지 ‘화엄전–몸짓과 낭송’ 개최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가 춤과 시, 국악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변신한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제루와 성보박물관에서 ‘화엄전(華嚴展)-몸짓과 낭송’을 개최한다.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해 온 한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경계의 화엄(華嚴)-파리에서 구례까지’를 통해 화엄사상을 현대예술로 풀어낸다.

‘화엄전-몸짓과 낭송’에는 파리와 한국, 도쿄를 오가며 활동하는 아방가르드 무용가 신은주(애나벨 신) 작가와 시 낭송가이자 한지 퍼포먼서인 엄경숙 국제하나예술협회 대표가 참여한다. 신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춤과 드로잉,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며, 엄 대표는 QR코드를 통해 시낭송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듣는 전시’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경계의 화엄-파리에서 구례까지’는 ‘경계 너머의 유목민적 사유’를 부제로 파리에서 오랜 시간 창작활동을 이어온 한국 작가들이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작품세계를 펼치는 ‘예술적 귀향’의 자리다.

홍현주·문창돈·최현주·훈 모로·박우정·홍일화·박인혁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조각, 설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파리의 대표적인 한인 예술인 단체인 ‘소나무작가협회’ 회원들로, 파리에서 이어온 ‘유목의 시간’과 화엄사의 ‘천년의 시간’을 연결하며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든다.

화엄사 관계자는 “서로 다른 예술이 모두 화엄의 ‘연결’이라는 하나의 정신으로 이어진다”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수행과 예술이 서로를 비추며 새로운 문화예술의 인드라망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월탄 대종사 4주기 다례재

8월 17일, 청주 용화사서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8월 17일 용화보전에서 미륭당 월탄 대종사 4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수행과 종단 정화, 전법에 평생을 바친 스님의 삶과 원력을 기렸다.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은 “월탄 스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던 분”이라며 “금오 노스님 밑에서 화두를 들고 공부에 전념했고, 정화운동이 일어나자 종단을 위해 몸을 던졌으며 종단이 어지러울 때는 안정을 위해 자신을 바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큰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우리 모두와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추모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스님께서는 전법도생뿐만 아니라 수행에도 철저했다”며 “문도들도 스님과 인연을 맺은 분들을 스승 모시듯 모시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용화사 범성 스님의 집전으로 종사영반을 봉행했으며, 법회 후에는 부도탑을 찾아 참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복 81주년 “총소리 대신 웃음소리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 광제사
전통문화체험 · 세계평화축제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 스님)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성부모, 목성아이’, ‘독립운동가 한상차림 현대적 재해석’, ‘광복 그날의 함성, 그때 그 간식’ 등 3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의 의미와 광복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5일에는 1층 다목적실에서 ‘화성부모, 목성아이’를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사찰음식체험장에서 ‘독립운동가 한상차림 현대적 재해석’을 진행했다.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면서 광복절과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에는 ‘광복 그날의 함성, 그때 그 간식’을 주제로 2층 문화체험실에서 태극기를 활용한 전통등을 만들고 사찰음식체험장에서는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간식을 직접 만들었다.

관장 탄대 스님은 “앞으로도 사찰음식과 전통문화, 역사를 연계해 민족혼을 고취하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8월 13일 대웅보전과 앞마당에서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한 세계평화축제’를 열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다.

행사는 문화공연에 이어 개회식과 세계평화 북소리 울리기, 인사말, 세계평화선언문 낭독, 세계평화 장학금 전달, 전쟁 희생자를 위한 살풀이, 세계평화 촛불 밝히기와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찰음식은 수행의 연장선”

평택 수도사, 17일 ‘사찰음식축제’
스포츠미래포럼…조국 전 대표도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공양하며 불교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8월 17일 사찰음식체험관에서 ‘한국스포츠미래포럼과 함께하는 수도사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한국스포츠미래포럼 회원들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관계 및 체육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의 지도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 공양했다.

본격적인 조리에 앞서 적문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용맹정진’의 의미를 설했다. 스님은 “청정과 유연, 여법의 정신이 육미(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떫은맛)와 조화를 이뤄 담백함으로 표현된 것이 사찰음식의 본질”이라며 “육식을 멀리하는 채식을 넘어, 재료를 가꾸는 순간부터 음식을 만들고 발우공양을 마칠 때까지 온 우주의 노고에 감사하고 모든 생명의 공존을 기도하는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만든 음식은 옥수수장떡이다. 참가자들은 한 톨의 쌀과 한 뿌리의 채소에 담긴 우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오관게(五觀偈)’를 봉독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어 적문 스님의 시연을 살펴본 뒤 조별로 나눠 음식을 만들었다.

조리 후에는 각 팀이 만든 옥수수장떡을 선보이고 평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장떡 만들기에 함께한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을 기념해 장떡 위에 태극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장떡에 담은 의미를 소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수도사가 친환경 재료로 마련한 대중공양을 함께하며 행사를 원만히 회향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광주 관음사, ‘팥빙수’ 자비나눔

8월 14일, 500인분 전달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 스님)는 8월 14일 광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충장동 상인과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비의 팥빙수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8일 동구불교협의회와 동구청이 체결한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비의 팥빙수 나눔’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음사에서 직접 얼음을 갈고 단팥과 밀떡, 현미 튀밥, 망고, 블루베리, 콩가루, 견과류, 연유 등을 더해 팥빙수 500인분을 만들었다. 완성된 팥빙수는 충장동 상가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소운 스님은 “관음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가 내려온 그곳, 태국은 어떻게 성지가 됐나

국립중앙박물관 '태국불교' 주제 국제학술대회

8월 13일 관내 소강당서 개최
노남희, 도리천강화 도상 통한 '성지의 현지화' 조명해 '눈길'
스님들 계단 내려오는 '탁밧데보' 도리천강화, 의례 통해 재현해
"중생 곁에 온 부처님 의미 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은 8월 13일 교육관 소강당에서 '태국의 불교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노남희 학예연구사의 발표 모습.

태국 불교사와 태국 불교미술 면면을 조명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8월 13일 교육관 소강당에서 '태국의 불교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과 연계해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태국 불교의 형성부터 불상 도상, 왕권 이념, 건축, 의례 공간에 이르는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영원에서 지상으로: 태국 불교미술의 도리천강하와 성지의 현지화'다. '도리천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을 낳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하안거 3개월 동안 도리천에서 설법한 뒤, 인드라와 브라흐마의 호위를 받으며 상카시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다.

노 학예연구사는 '도리천강하'의 핵심을 부처님이 일으킨 '기적'보다 천상에 있던 부처가 중생 곁으로 돌아와 특정 장소에 현존하게 됐다는 점에서 찾았다. '부처님이 내려선 곳은 그 존재만으로 성지가 된다'는 인식이 태국에서 '도리천강하' 도상이 오랫동안 변주될 수 있던 배경이라는 게 노 학예연구사의 설명이다.

노 학예연구사는 "'중생을 위해 이 땅에 다시 내려온 부처와 그로 인한 장소의 성지화'라는 개념이 도리천강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며 "인도 바깥의 지역에서 도리천강하 서사를 가장 꾸준히 활용하고 재현한 지역은 단연코 태국"이라고 강조했다.

'도리천강하'의 시각화는 드바라바티 시대(6~11세기)부터 확인된다. 현재 방콕 왓 수탓 본존불 대좌 뒤에 부착된 부조에는 도리천에서 마야부인에게 설법하는 부처님이 표현됐다. 이 부조가 '도리천강하' 도상의 첫 장이다. 이후 '도리천강하' 이야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주된다.

대표적인 것이 태국 불교미술만의 독특한 불상인 '걷는 부처'다. 수코타이 시대(13~15세기)를 대표하는 '걷는 부처' 역시 이를 재현한 불상이다. 이 시기에 오면 인드라와 브라흐마, 계단 등 주변 장치가 사라지고 부처님 존상만 독립적 예배상으로 조성하게 된다. 독립된 예배상이 된 '걷는 부처'는 더 이상 '도리천강하'라는 맥락에만 갇혀 있지 않게 됐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린나왕국의 불족적 신앙이다. 린나왕국에서는 걷는 부처와 불족적이 성행했고 이는 '불법이 번성할 곳에 발자국을 남기는 부처'로 해석됐다. 나아가 순회 설법이나 경행 수행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의미가 확장됐다는 게 노 학예연구사의 설명이다.

라따나꼬신 시대(18세기~현재)에 와서 '도리천강하' 이야기는 회화 매체로 확장되며 서사 구조 역시 '도리천 설법-계단을 통한 강하-상카시야 설법'의 3단 서사로 확대·정착된다. 특히 도리천강하를 그린 '프라봇(Phra Bot, 의례용 회화)'은 하안거인 '카오판사(Khao Phansa)' 기간에 사원에 걸렸는데 이는 도리천강하 이야기 속에서 부처가 도리천에 올라간 것이 하안거 기간이었다는 점과 상통한다. 이에 대해 노 학예연구사는 "하안거 기간에는 많은 신도들이 사원을 방문해 공양하고 설법을 들었으며, 이때 프라봇은 설법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19세기 중후반부터는 '탁밧데보(Tak Bat Devo)' 의례를 통해 '도리천강화'가 일어난 장소인 상카시야가 되기도 했다. '탁밧데보'는 태국 음력 11월 하현 1일, 즉 출안거(Ok Phansa) 다음날 아침에 열리는 탁발 공양 의례인데, 단순한 공양 의례가 아닌 '천상에서 부처가 하강하는 것'을 재현하는 의례다. 가장 유명한 것은 우타이타니(Uthai Thani)의 왓 상캇라따나키리(Wat Sangkat Rattanakhiri)에서 열리는 의례로, 약 400명이 넘는 스님이 수천 명의 신도들이 양옆에서 공양하는 가운데 449개의 계단을 따라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 학예연구사는 "도리천강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천상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이 땅에 불법을 펼치기 위해 중생들의 곁으로 돌아온 존재가 됐다"면서 "높은 산에서 줄지어 내려오는 승려들의 모습을 통해 도리천강하를 지금 이 땅에 다시 재연하고, 태국을 '상카시야'라는 성지로 만드는 모습은 태국불교가 만들어 온 창조적 역동성의 또 다른 한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㊸ 입측오주(入厠五呪)

화장실에서 마음을 닦는다

入 厠 五 呪

절집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부른다. '근심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담백한 이름처럼, 해우소는 몸속의 노폐물만 내보내는 곳이 아니다. 마음에 켜켜이 쌓인 번뇌와 욕망까지 내려놓는 수행 공간이다.

불교에서는 먹고 배설하는 일을 천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그러기에 본능적인 생리 현상조차 수행으로 삼는다. 스님들은 해우소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입측오주(入厠五呪)'라는 다섯 가지 진언을 외운다. 몸을 비우는 순간, 마음의 번뇌까지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첫째는 해우소에 들어서며 외우는 입측진언(入厠眞言, 옴 하로다야 사바하)이다.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동시에 마음에 쌓인 묵은 때까지 씻어내기를 발원한다. 둘째는 일을 본 뒤 국부를 씻으며 외우는 세조진언(洗條眞言, 옴 바시라 노하야 사바하)이다. 오물을 씻어내듯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곧 삼독(三毒)의 번뇌도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셋째는 손을 씻으며 외우는 세수진언(洗手眞言, 옴 주가라야 사바하)이다. 손에 묻은 오염을 씻어내듯, 자신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 이로움이 되기를 서원한다. 넷째는 거예진언(去穢眞言, 옴 시리다 도사 사바하)이다. 몸과 주변에 남은 탁한 기운을 없애고 청정한 상태를 회복하기를 발원한다.

마지막은 정신진언(淨身眞言, 옴 수다리 수다리 수마리 수마리 수무리 사바하)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뒤 다시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일상의 사소한 행위 하나에도 수행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 사상적 뿌리는 〈화엄경〉 '정행품(淨行品)'에 닿아 있다. 문수보살은 세수하고, 옷을 입고, 길을 걷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땅히 중생들이 ~하기를 발원한다(當願衆生)"라는 서원을 세운다. 대·소변을 볼 때에도 "마땅히 중생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더러운 법을 지워 없애기를 발원할지니라"고 한다. 몸을 비우는 평범한 행위마저 중생을 위한 서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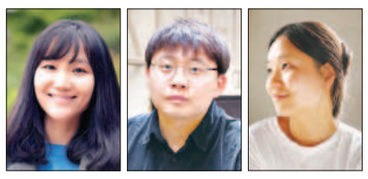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현주 목사의 '똥에 대하여'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내 안에서 나갈 때 너는 더러웠다. 아무도 너를 만지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땅은 너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서 제 가슴 깊이 묻어 두었다가 (…) 알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내가 참으로 버려야 할 것은 내 몸에서 나온 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 있는 똥, 남을 미워하고 탐내고 시기하는 그 더러운 마음이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

〈화순 불암사 주지〉

제24회 유심상에 안희연·정용준·오은교

오는 9월 12일 시상식


안희연 정용준 오은교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제정된 유심상 제24회 수상자로 시 부문 안희연 시인, 소설 부문 정용준 소설가, 평론 부문 오은교 평론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조 부문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제24회 유심상 심사위원회는 안희연 시인에 대해 "말과 세계의 안전한 합일보다 그 사이의 균열을 집요하게 응시함으로써 시의 난경과 황홀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미학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정용준 소설가에 대해서는 "냉소와 불신이 지배하는 동시대에 사랑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새롭게 갱신해 온 작가"라고 상찬했다.

오은교 평론가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통해 비평의 경계를 넓히면서 동시대 비평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감각과 사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수상의 이유를 전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온 유심상은 최근 2년간의 저서를 대상으로 시, 시조, 소설, 평론 부문으로 나누어 그간의 문학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문학인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로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제24회 유심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오후 5시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 문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상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만해마을 문인의집 2층 라운지(비움)에서 제24회 유심상 수상자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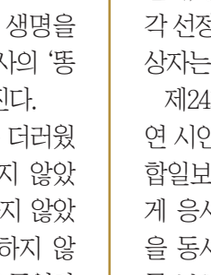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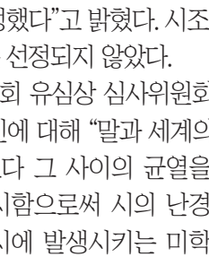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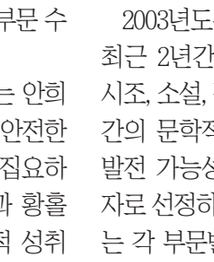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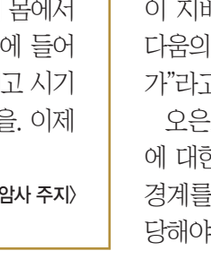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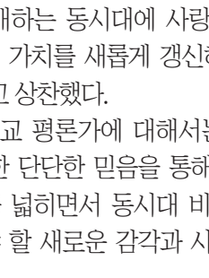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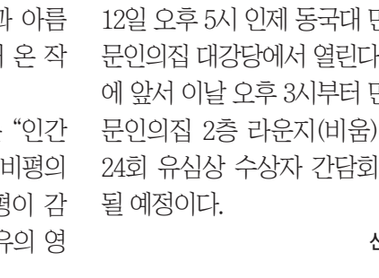
2026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26팔관회
명상 걷기대회

2026. 9.12 토요일 오후 6시
북항친수공원 경품 추첨 및 어울림한마당

사회_BBS 부산불교방송 조예지 아나운서

어울림 한마당 출연가수

전유진

진욱

금윤아

식전 행사

명상지도사 최인혜

불자 가수 엄재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로투라

신청 방법
2026팔관회 명상 걷기대회는 스마트폰 NFC 인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소지자는 누구나 사전 및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소지하신 분도 현장에서 별도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전 참가신청
① 참가신청 QR코드 스캔 →
② 전화신청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051)868-5455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현장 참가신청
- 행사 당일 현장에 설치된 참가신청 부스 방문 후 신청
- 만 14세 미만 참가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 당일 오후 4시부터 접수 가능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경품 추첨
LG 김치냉장고, LG 스탠바이미 TV
다이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6팔관회봉행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문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_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8-5455

사찰음식, 미래 식문화 이끌 'Timeless Wisdom'

〈시대 초월한 지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국제심포지엄

양종집 "발우공양, 新식문화 모델"
오관게, 요리 교육 지향점 담아
CIA 內 한국관 건립 계획 소개
정진요리 · 솔잎식 등 연구 발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2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린 '2026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내외빈을 비롯한 발표자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찰음식은 미래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음식문화가 아닌 미래 사회가 다시금 발견하고 있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변하지 않는 지혜(Timeless Wisdom)'입니다." (양종집 교수)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담아낸 사찰음식이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 식문화의 모델로 제시됐다. 미래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중요한 방향과 해법을 사찰음식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음식의 미래 변화와 사찰음식'을 주제로 '2026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사찰음식의 수행 정신과 지속가능성, 음식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양종집 CIA 아시아음식학부 교수는 '세계 미식문화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를 초월한 지혜' 를 통해 미래 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의 가치와 세계화의 가능성을 살폈다.

양 교수는 현대 사회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식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모순적으로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건강을 걱정하고 환경을 염려하며 마음의 평안을 갈망한다"고 진단하며 "세계인이 지향하는 식문화는 새로운 레시피나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더 깊은 가치를 담은 음식들과 그러한 음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삶의 방식을 찾는 데 있다"고 전망했다.

사찰음식의 본질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왜 먹느냐에 있다"고 강조한 양 교수는 오늘날 사찰음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유로 특정 종교를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꼽았다.

그는 "사찰음식은 '육류를 사용하지 않는 채식'이라는 식자재나 요리방식 또는 음식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찰음식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식문화이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생활철학이고, 공동체와 생명을 존중하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 교수는 '발우공양'을 미래 식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불교의 공양 의식인 발우공양에 대해 그는 "단순한 종교의식을 넘어 인류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식사 문화(Global Table Manner)를 제시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현대인의 식사는 일종의 소비 행위지만 '공양'은 자연과 공동체가 준 생명의 선물을 감사히 받는 행위"라며 "발우공양은 천천히 먹는 법, 감사하며 욕심내지 않는 마음, 음식을 남기지 않는 책임, 함께 먹는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 준다"고 설명했다.

발효와 장에 대해 양 교수는 미생물과 자연의 시간이 완성하는 '자연과 협력하는 지혜'로 설명했다. '불시불식(不時不食)'과 '약식동원(藥食同源)' 역시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사찰음식의 원리로 제시됐다.

양 교수는 "현대인은 사계절 내내 거의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의 식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와 멀어진 식생활은 오히려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면서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사찰음식은 우리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 준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오관게'를 현대 요리 교육과도 연결했다. 음식이 오기까지의 공덕을 생각하는 가르침은 지속가능성과 원산지 추적으로, 자신의 덕행을 돌아보는 것은 윤리적 리더십으로, 탐욕을 경계하는 것은 마음챙김과 제로 웨이스트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봤다. 음식을 약으로 여기는 가르침과 도업(道業)을 위해 음식을 받는다는 의미는 건강과 공동체 기여로 연결된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오관게는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자연과 인간의 노동을 이해하게 되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노래이자 요리사의 인격을 만들고, 식문화를 변화시키며,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섯 가지 교육 원칙"이라며 "한국의 사찰음식은 단순한 전통음식이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미식과 요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변하지 않는 지혜(Timeless Wisdom)'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며, 세계 시민들의 기초적인 식생활문화와 올바른 생활양식을 전하는 '글로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교수는 사찰음식의 글로벌 확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찰음식은 세계인이 던지고 있는 '이 음식은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깊이 있는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미래의 식문화 경쟁력은 더 이상 '재료'나 '기술'에만 있지 않다.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가'가 핵심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찰음식은 이미 미래 식문화 시장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CIA 뉴욕 본교에 한식 교육과 다도·명상, 전시·학술교류 등의 기능을 갖춘 한옥 한국관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마달레나 보르사토 이탈리아 미식과학대 교수는 '단맛의 회복: 체화된 지식과 환대 사이에서'를 통해 친밀함과 배려까지 포괄하는 '단맛(Sweetness)'과 정제당·첨가당 중심의 '설탕 중심 단맛(Sugariness)'을 구분했다. 보르사토 교수는 "진정한 단맛은 타인을 향한 친밀한 돌봄의 행위이자 경계를 넘어 서로를 연결하는 소통 방식이었다"며 "단맛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나눔을 지향하는 관계의 언어였다"고 강조했다.

요시무라 쇼요 일본 조동종 보문사 주지는 도겐 선사의 〈전좌교훈〉과 〈부죽반법〉을 토대로 일본 정진요리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했다. 요시무라 스님은 채소 껍질과 다시마·표고버섯 조각까지 활용하는 조리법과 발우에 남은 음식물을 물로 씻어 마시는 의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으로 소개하며 "정진요리는 모든 존재와의 공존이라는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와 음식의 준비와 소비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합치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13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계승된 정진요리의 전통은 결코 박물관 선반에나 올라갈 죽은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 지구적 환경위기와 구조화된 음식 시스템의 문제점에 맞서는 '살아있는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 승려 두타행자의 솔잎수행식'을 발표했다. 공 교수에 따르면 솔잎식은 도교의 벽곡에서 시작됐지만 불교에서는 신선이나 장수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 산중 수행자의 음식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식으로 수용됐다.

조선 승려들은 솔잎을 가루로 만들어 곡식가루·죽과 함께 섭취했고, 송홧가루·소나무 껍질·복령도 활용했다. 공 교수는 "솔잎식이 농사와 탁발, 조리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재가자에 대한 의존을 낮춰 수행에 전념하게 했다"면서 "맛과 양에 대한 갈애에서 벗어나 거친 음식에도 만족하는 두타행의 태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사찰음식의 미래 정체성 확립부터"

계호 스님, 기조강연서 강조

사찰음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행공동체의 식생활문화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은 8월 2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최한 '2026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사찰음식의 오래된 미래를 위한 화두'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먼저 계호 스님은 사찰음식을 "수행자들의 수행공동체로 이뤄진 승가의 식생활문화 전반"으로 정의했다. 단순한 채식이나 조리법이 아니라 '불살생의 계율을 바탕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음식 섭취를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식문화'라는 것이다.

이어 스님은 전통 공양문화와 현대 사찰음식의 변화를 조리 공간, 의례, 식사 방식, 교육 대상, 조리법, 식재료 조달 등 15개 항목으로 나눠 살폈다. 재래식 공양간은 현대식 공간으로 변했고 발우공양 체험은 스님 중심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됐다. 식재료 조달과 조리법은 다양해지고 외부 음식 전문가와의 교류도 늘었다.

반면 일상 의례로서 발우공양의 연속성은 약화됐고 식당형 공간과 입식 방식이 선호되는 변화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통과 현대의 기준을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호 스님은 "사찰음식 자체가 전통적인 불교의례 문화에 속하므로 그 문화적 깊이를 더욱 다지며 공고히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수행자의 음식으로서 사찰음식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범주를 정립하고, 승가 내부에서 발전 방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화 방식에 대해서도 'K-미식'이나 'K-음식'과 같은 유형화보다 소식(小食)·소식(素食)·미소(微笑)를 강조한 삼소운동과 같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찰음식 체험에 대해서도 스님은 "전통 사찰식문화와 구분하되 체험 과정의 불교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계호 스님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제9회
2026. 10. 10 음 8.30
토요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三歸依戒 五戒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원장)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정관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원오사 주지)
덕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재무국장, 해동용궁사 주지)
성광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화국장, 국청사 주지)

수계비 1인 5만원 복장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의 : 사무국 051) 501-7554

행사 당일 YouTube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청 방법
1.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YouTube' 검색 후 설치
2. 검색창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2026년도
종단 종도합동 연수대회 개최안내

귀의 삼보 하옵니다. 종도 고승대덕 사부대중 종도여러분,
'배움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고, '실무로' 미래불교를 준비합시다.

이번 연수는 종헌·종법과 종무행정.교육.포교.회계·세무·복지·연금·경영·현대포교 현장에서 적용할수 있는 실무중심의 종합교육으로 마련하여.전국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연수대회 개요
1.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 9월 3일(목) / 1박 2일
2. 집결 및 등록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9시까지 집결
3. 장 소 : 경남창녕군부곡면 온천중앙로3 (부곡온천 로얄관광호텔, 연수장)
4. 참가대상 : 본 종단 소속 전 종도 및 교육대상자. ■ 연수회비 : 15만원
5. 등록마감 : 2026년 8월 25일(화)까지 ■ 문의·접수 : 교육원/총무원 055-338-0089
※ 원활한 숙박·교재·좌석 배정을 위하여" 등록기간을 준수 바랍니다.

Ⅱ. 연수 참가자 혜택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종도에게 다음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① 종단 공식 연수이수증서 발급
② 종도교육 전문 연수교재 지급
③ 법계승급 심사 연수 가산점 적용
④ 연수대회 기념품 증정

Ⅲ. 주요 교육과목 및 강사
1. 종단 교육기준 및 교육제도 특강 – 교육원장
2. 중앙종회의 기능과 종무행정 관련한 특강 – 종회의장
3. 종헌·종법 및 헌법과 관련한 실무 특강 – 총무원장
4. 강연 – 세무학박사 세무사, 사회복지학 박사 교수, 정치학박사 교수, 미국WBU –학교법인– 세계불교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총장
5. 불교의식·범음 및 거불성 실습 – 어장 교육부원장

사단법인 대승불교삼보조계종(大韓)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9~8/2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유노북스	6	공양간의 셰프들	계호 외	생각의힘
2	우리말 지장경	이일영	선문출판사	7	금강반야경 문수반야경	김태완	침묵의향기
3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8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불광출판사
4	묘법연화경	광우, 정목	김영사	9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	조계종출판사
5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10	염불각자열전	김성우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서장	고우/전재강	운주사	6	중관학 특강	김성철	오타쿠
2	불교사회복지	명안	운주사	7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뽈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3	니까야 강독2	각묵, 대림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4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 허주형	운주사	9	선가귀감	영남불교대학교재편찬	좋은인연
5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10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스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산사의 별식



스님의 맛
장보배 지음
모과나무
2만2000원

산사 24곳의 국수와 삶 이야기
본지 연재 글 새로 엮은 에세이
긴장 내려놓고 수행 여정 위로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사찰에서는 수행 중 별식으로 국수가 나올 때면 스님들이 미소를 짓는다고 해 국수를 '승소(僧笑)'라 부른다. 국수 한 그릇은 스님들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고된 수행길을 위로하는 음식이다.

〈스님의 맛〉은 장보배 작가가 본지에 연재했던 '사찰국수 기행-스님이 웃는다'를 새롭게 엮은 책이다. 덕조 스님과 정관 스님 등 전국 산사 24곳의 스님들의 국수에 얽힌 삶과 수행의 여정을 담았다.

책은 위로, 기억, 수행, 자연, 나눔의 5부로 구성됐다. 제철 재료와 발효 장류로 끓여낸 사찰 국수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산사의 부엌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일상, 수행자의 검박한 생활, 불가(佛家)의 공양 문화, 사찰음식에 담긴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았다.

"반찬은 세 가지를 넘지 않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먹는다." 법정 스님은 맏상좌 덕조 스님에게 이러한 식생활 원칙을 강조했다. 가짓수가 많은 식탁을 대하면 생각이 흐트러지기에 '먹이는 간단명료하게'라는 '부엌훈(訓)'을 걸었다. '불일암 국수'도 이 원칙에 따라 단출하다. 삶은 국수와 채소에 간장, 물, 매실청, 꿀, 참기름, 깨소금을 섞은 양념만 곁들여 깔끔한 맛을 낸다.

정관 스님에게 국수는 수행 중 누리는 여유이자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음식이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8:2 비율로 섞은 면에 무와 무청, 배추, 능이버섯, 건고추로 낸 채수를 곁들인 '능이 배추 칼국수'는 감칠맛과 고소함이 특징이다.

서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기를 낮춰야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화 스님의 '들깨칼국수'는 혼자 생을 마감하려 했던 이에게 다시 살 용기를 준 음식이다. 무와 다시마 채수에 칼국수를 넣고 끓인 뒤 들깻가루와 찹쌀가루, 미나리를 넣은 이 국수는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단골 보양식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 우담 스님을 키워낸 할머니의 '시래기 국수', 제철 쑥의 향을 살린 주호 스님의 '쑥칼국수', 수박의 달콤함과 동치미의 짭조름함이 조화를 이루는 육통 스님의 '수박동치미 국수' 등 다양한 국수를 선보인다. 정우 스님의 '도토리 묵사발', 우일 스님의 '바질 페스토 스파게티' 같은 이색 메뉴도 만날 수 있다. 각 장 끝에는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와 사진을 수록해 책의 활용도를 높였다.





법정 스님과 함께 나눈 덕조 스님의 '불일암 국수'(왼쪽)와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을 통해 사찰음식 열풍을 일으킨 정관 스님의 '능이 배추 칼국수'. 사진 제공=장보배 작가

이 책은 국수에 얽힌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도반과 신도 등의 인연과 절집의 풍경, 수행의 지혜를 전한다.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깊은 선문답 등 다채로운 삶의 서사도 담겨 있다. 나아가 자연의 재료를 온전히 담은 국수 한 끼도 수행의 연장선임을 역설하며, 사찰 공양간이 곧 마음을 닦는 치열한 수행의 공간임을 일깨운다. 주어진 재료를 아껴 쓰고 오가는 이들과 기꺼이 나누며,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는 '회향'이 공양의 처음이자 끝임을 깨닫게 한다.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북한의 실체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
김용현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7000원

'군사국가화' 형성 과정 살펴
"비판보다 이해 · 설득 노력"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은 오늘날 북한 체제를 '군사국가화'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며 북한의 핵무력·군사력 강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짚어낸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국가화가 1990년대 '선군정치(先軍政治)'와 함께 갑작스럽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기원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김일성을 비롯한 지도부가 무장투쟁의 경험을 권력의 정당성으로 활용했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회 전체를 군사적으로 조직하는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군은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북한을 일반적인 군사정권과 구별한다. 당과 군이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결합돼 정치·경제·사회에도 군사적 사고와 명령·복종의 원리가 깊숙이 스며들면서 북한은 '나라 전체가 군대와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됐다. 군사화의 영향은 주민들의 일상에서도 나타난다. 군사훈련과 조직생활을 통해 주민들에게 군대식 규율이 내면화되고, 제대군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배치되면서 군사문화가 확산됐다. 경제 역시 국방 우선의 원칙 아래 운영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저자는 무조건적 비판 대신 북한 실체를 직시하고, 군사적 억지력과 함께 상대를 이해·설득하는 인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열쇠임을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파랑새가 전하는 마음의 평화



마음 꽃이 피어나요
여태동 지음
여민 그림
시간여행
1만8000원

108평화보궁에 둥지 튼 파랑새
기도와 가피의 의미 묻는 동화



도안사 108평화보궁에 둥지를 튼 파랑새는 진정한 '행운'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사진 제공=시간여행

새가 날아들고, 바람이 불고, 나무에 꽃이 피는 자연의 풍경은 때로 한 편의 법문이 된다. 특히 지친 마음으로 산사를 찾은 이에게 새소리와 바람 소리는 말보다 깊은 위로를 건넨다. 〈마음 꽃이 피어나요〉는 서울 도안사 108평화보궁에 찾아온 파랑새를 매개로 생명과 기도, 가피와 평화의 의미를 풀어낸 동화다.

불교신문에서 3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하며 시와 동화를 써온 저자는 도안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파랑새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안사에 찾아왔던 파랑새가 2025년 다시 둥지를 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부처님오신날 무렵 찾아와 새끼를 낳고 떠난 파랑새 한 쌍은 책에서 생명의 법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선재 동자가 있다. 도안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지내며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고 자란 선재는 어느 날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혜자 스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묻는다. 스님의 답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한다.

"행운은 잎이 네 개가 달려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란다. 네 마음이 고요해질 때 피어나는 것이지."

책에서 파랑새는 선재에게 말을 걸고, 혜자 스님은 파랑새와 교감하며 33관음기도를 올린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도량에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평화의 불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의 해를 맞아 붉은 말의 형상을 보인다. 또 오래 걷지 못했던 할머니가 다시 걷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이가 마음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기도와 믿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동화적 상상력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마음이 관계를 변화시키며, 결국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는 가르침이 담긴 것이다.

선재 동자의 눈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을 행운이라 생각하나', '내 마음은 지금 얼마나 고요한가'를 돌아보게 된다.

혜자 스님은 2000년대 초 '108 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며 새로운 신행문화를 만들었다. 책에서는 스님의 신행과 법문이 파랑새를 만나면서 보다 친근한 이야기로 펼쳐진다.

파랑새가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은 '기적' 자체가 아니다. 생명을 바라보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는 마음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새 한 마리도 법문이 되고, 바람 한 줄기도 위로가 되며, 작은 꽃 한 송이도 삶의 기쁨이 된다.

행운을 찾아 밖으로 떠도는 대신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는 어린이뿐 아니라 삶에 지친 어른들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여수령 기자



틱낫한 스님의 『안반수의경』 해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숫타(안반수의경)』를 틱낫한 스님이 쉽고도 현대적으로 해설하였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옮김/국판변형/192쪽/값 14,000원

교실에서 붓다의 가르침 실현하기
불교로 가르치다
붓다의 대화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실천서로, 일방 주입식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드 브라운, 신희정 옮김/신국판/320쪽/값 22,000원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새로운 불교심리학
12개국 38명의 저자가 서양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심리학 모델과 이론을 소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모리츠 키 외 편집, 윤희조·박재은 옮김/신국판/872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어쩔 건데' 정신으로 나가라"



부처의 감정 수업
자현 스님 지음
오아시스
2만원

불교에 기반한 감정 가이드
돌직구 화법과 생생한 비유
"감정을 삶의 에너지로 승화"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단 한 번뿐인 인생, '어쩔 건데' 정신으로 뚫고 나가라."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표현하고 발산하는 활발발(活潑潑)한 삶이 곧 극락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네 탓'을 하라."

박사 학위만 8개, 저술 단행본만 70여 권인 '대한민국 대표 학승'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장)이 최근 펴낸 신간 〈부처의 감정 수업〉에서 건넨 조언이다. '세상이란 파도를 거침없이 타기 위한 자현 스님의 가르침'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삶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견디느라 '속 시끄러운' 현대인을 위한 감정 가이드다.

자현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의 가르침에 기반해 감정의 소용돌이와 삶의 모순을 긍정하고, 타고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감정을 '대긍정'하며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고, 험난한 일상에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 등을 특유의 돌직구 화법과 생생한 비유로 6장에 걸쳐 풀어냈다.

스님은 '감정'이란 오랜 진화의 산물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억누르거나 없애기보다는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것을 주문한다. 감정의 파도를 타되, 철저하게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어 본래 모습을 그대로 긍정하고 수행을 통해 단 한 번뿐인 삶,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강조한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면 석가모니는 출가하지 않았다' 편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장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불행해진 건 세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임을 기억하라"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고 현실을 바꿀 능력도 없다면, 내 관점이라도 바꿔서 버텨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감정은 풍부할수록 좋다면서 감정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만 않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며 "인과관계를 초월한 감정의 파동은 인공지능(AI)도 복제해 낼 수 없다"며 "AI시대에는 감정에 충실한 '또라이'만 살아남는다"고 덧붙인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라 부른다. 스님은 이미 지나간 일에 선을 그음으로써, 과거 감정이나 손실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 삶을 살라고 제언한다. 또 위축되지 말고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타인의 공격이나 억울함에는 "맞서지 말라"면서 "물그릇처럼 스윽 받아들이고, 낮게 임하여 흘려보내면 그 어떤 감정도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내 안의 에너지를 온전히 내 삶을 구현하는 데만 써도 모자란 게 인생"이라고 조언한다. 누가 나를 공격하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당당한 유일성을 깨닫는 것이 '존재로서의 강자'가 되는 길이라고 역설한다.

불안함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불안할 틈이 없다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한다. 과도한 인정 욕구 역시 내 삶에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 삶의 주인이 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실패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과감히 '네 탓'을 하라고 권한다. 남 탓은 나 자신을 적으로 돌려 자책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갑옷'인 셈이다. 실패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 탓'을 외치다 우울감으로 내가 무너지고 나서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판단에서다.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도 담겨 있다. '마음만 편하면 장땡'이란 생각은 "지독한 착각"이라면서 자본주의 현실에서 휘둘리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꼬집는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명상은 죽은 명상이라며, 인류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한다.

스님은 "명상을 하다 눈이 멀 뻔했고, 온갖 부작용을 다 겪어 봤다"면서 "에너지를 다루고 관점을 바꾸는 수행은 위험하고 강력한 도구로 검증되지 않은 기법에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담보된 방식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기보다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그 너울을 거침없이 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는 직장 상사도, 부자도, 1등도 아닌, 바로 나 자신뿐이니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 순간 감정을 소모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지' 등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은 당부한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중심을 잡고 '어쩔 건데!'라는 태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타고 흐를 때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호흡에 의한 알아차림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틱낫한 스님 지음
허우성 옮김
운주사 / 1만4000원

'아나파나사티 숫타' 현대적 해설
변화 이끄는 수행으로 '마음챙김'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마음챙김(Mindfulness)'은 평온한 삶을 위한 시대의 유행이자 심리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심리학이나 뇌과학의 언어로 설명되지만, 그 뿌리는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수행법에 맞닿아 있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는 틱낫한 스님이 생전 불교의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數息觀)의 핵심을 담은 경전인 〈아나파나사티 숫타(安般守意經, 호흡에 의한 완전한 알아차림의 경)〉를 현대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마음챙김을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깊이 있게 조명한다.

책은 경전에 담긴 16가지 호흡 명상법을 따라가며 수행의 전 과정을 검토한다. 또 느낌[受], 마음 작용[心], 인식[法]으로 우리 능력의 토대를 이룬 사념처(四念處)와 깨달음을 위한 일곱 가지 요인인 칠각지(七覺支) 등을 살핀다.

아울러 멈춤[止]과 깊이 봄[觀]에 중점을 둔 경전 속의 완전한 알아차림의 명상을 7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일상에서 호흡을 알아차림 △몸에 대한 알아차림 △몸과 마음의 통일의 실현 △기쁨과 행복에서 양식을 얻음 △느낌을 지켜봄 △마음 돌보기와 마음 해방하기 △모든 현상의 본성을 밝히기 위해 깊이 바라봄 등이다.

틱낫한 스님에 따르면, 호흡은 깨달음의 수단이자 의식의 집중을 지속하는 방법이다. 이 책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 몸과 느낌을 이해하고, 마침내 모든 존재의 무상(無常)함과 상호연결성을 통찰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특히 스트레스 감소나 집중력 향상을 목표로 한 여타 마음챙김 관련 책과 달리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호흡 속에서 찾도록 이끈다.

또 명상을 현실과 동떨어진 행위로 보지 않고, 걷고, 숨 쉬고, 차를 마시는 삶의 평범한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자체가 명상임을 일깨워준다. 스님은 "호흡을 즐기라"면서 행복은 수행이 끝난 뒤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배희정 기자

"명상, 마음에 박힌 낡은 못 뽑는 일"



정목 스님의 하루 명상
정목 스님 지음
수오서재
1만8500원

입문자 위한 명상 24가지
QR코드로 만나는 스님 안내

하루 10분, 수많은 생각과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명상법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마음공부 전문 매체인 '유나방송' 등에서 치유와 지혜의 법문을 전해 온 정목 스님(서울 정각사 주지)이 펴낸 〈정목 스님의 하루 명상〉이다.

'소음에서 고요로, 집착에서 비움으로'란 부제처럼, 이 책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도록 안내한다. 스님은 명상의 '명'이 '어두울 명(冥)' 또는 '감을 명(瞑)' 자를 쓴다며, 명상이 깊은 어둠으로 이끈 뒤, 내 안의 작은 빛을 발견하도록 이끈다고 설명한다. 명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 내면의 순수함이 드러나고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명상은 "마음에 박힌 낡은 못을 뽑아내는 일"이며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돈해 줘 마음에 등대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다.

스님은 슬픔, 분노, 불안 등 두려운 감정들이 몰려와 세상이 검게 물드는 날엔 감정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알아차리라고 권한다. 온몸으로 숨이 드나드는 현재의 호흡에만 집중하면, 불필요한 생각은 밀려나고 정신이 맑아져, 대인 관계도 편해진다고 말한다.

스님은 명상을 어렵게 여길 것 없이, 밖으로 향하던 관심을 안으로 모아 한 가지에 집중하면 충분하다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 자리에 앉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힘도 점차 자라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책의 각 장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21가지 실천명상법을 담았다. 여기에 쇄골 타점 두드리기, 용서의 편지 쓰기, '나와 화해하세요'의 3가지를 더해 독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온전히 깨어나기, 분노와 함께 숨 고르기, 좌절과 우울의 터널 지나가기, 불안한 마음 바꾸어 놓기 등 9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노, 우울, 불안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필요한 명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개해 입문자들에게 유용하다. 1분간 시계의 초침에만 집중하는 '초침 바라보기 명상', 후회와 걱정을 잠재우는 '호흡 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숫자 세기 명상' 등이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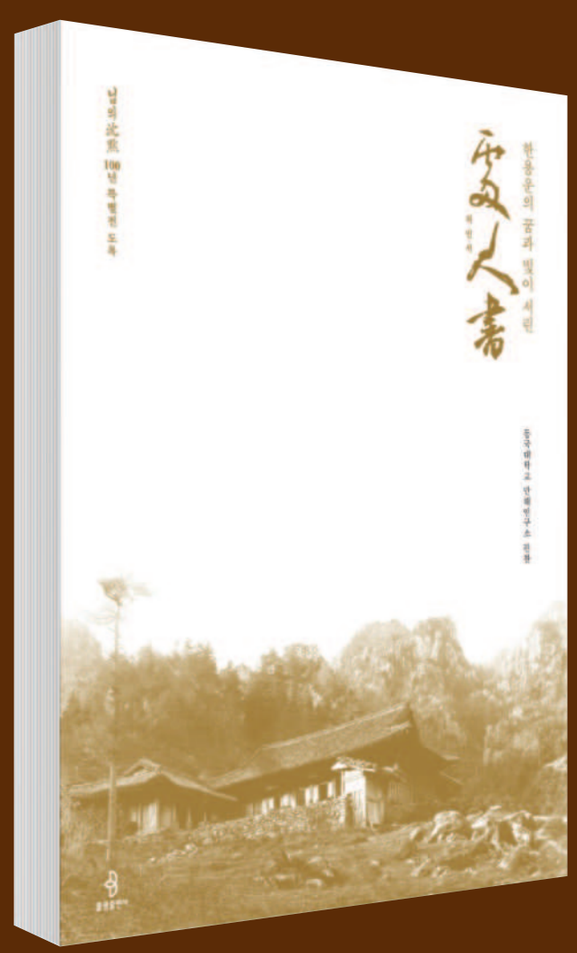
이 밖에도 스스로 화해를 청하는 '자기존중 명상', 마음 표현에 서툰 아이의 감정과 상처를 다독이는 '흰쌀 명상', 청소년의 자아 탐구를 돕는 '거울 명상' 등 자비와 사랑으로 나뿐 아니라 타인을 품는 다양한 명상법을 제시한다.

각 장 끝에는 정목 스님의 안내 목소리를 들으며 직접 명상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수록했다.

정목 스님은 "이 책을 따라 명상하며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고 고요 속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비울수록 가득해지는 풍요로움을 독자분들이 받아들여 고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희정 기자

100년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만해(萬海)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님은 갔습니다' 뒤에 숨겨진
만해 한용운의 남다른 면모들,
친필 서간부터 유묵까지…
10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해의 모든 것'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處)·인(人)·서(書)

『님의 침묵』 간행 10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장소·사람·책으로 재조립한 '만해정신'의 결정판

이 책은 만해 스님이 머물렀던 장소와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
스님이 읽고 쓰고 편찬한 글을 토대로 완성한 시각적 평전이자
'한용운'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문학적 아카이브다.

"조선불교 유신의 책임이 천운이나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 유신론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는 동시에 이를 승려 형제들에게 알린다."
_『조선불교유신론』「서론」 중에서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
참된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고 참된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함께 한다.
실로 자유와 평화는 전 인류의 요구라 할 것이다."
_「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중에서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편찬 | 222쪽(수트 케이스) | 5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저를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 참회합니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⑯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

◉ 어리석음[치암] 참회

이제부터는 중급 참회로서 탐진치 세 가지 의업 중에서 치(癡), 또는 치암(癡暗), 즉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를 설명한다. 치암에는 항목이 많은데, 그 첫째가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나 고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어서,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면서 심하게 다퉈야 할 때가 있다.

화내는 일이 보통의 경우에는 악업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회 정의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반야참회〉의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Ⅱ)’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상대방과 대립 또는 갈등이 생길 경우에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악업을 짓게 되어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따라서 이럴 때 악업을 크게 짓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 방법이 바로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 즉 ‘불수자신(不守自身) 참회’다. 이 참회는 갈수록 이기적이고 약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반야 참회의 특징 중 하나다. 이 참회를 제대로 소화하면 남에게 크게 악업도 짓지 않고, 자신이 크게 피해도 보지 않게 되어 지혜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현실에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잘 보존한다는 의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신체, 재산, 건강, 행복, 가정, 직업, 자존심, 프라이버시, 취미, 종교 등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이하 ‘소유물이나 권리’로 표기)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훼손당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는 일이 있었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참회 기준

‘참회 기준’이란 반야 참회에서 참회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참회 대상이 광범위해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참회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특정 행위를 참회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가 그중 하나에 해당된다.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의 참회 기준은 ‘상대방과 상황을 잘 살펴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음을 참회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올바르게 판단하고 처신했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판단이 올바르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전자는 참회 대상이 아니며 후자의 경우가 참회 대상이 된다. (※ 그러나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도 이 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상대방과 그 당시의 상황,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 참회 기준의 의미는, 자신이 피해를 본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올바른 판단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참회한다는 것이다.

악업을 크게 짓지 않고 자신 지키는 법
올바른 판단·대응 못한 어리석음 참회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 침해 반복되고
폭력·모욕서 자신 지키지 못함이 대상

대응하거나 따지지 못함을 마음속 참회
분할 땐 울음 참지 말고 부처님께 호소

이 참회 기준은 마음속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고 참회할 때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다. 다만 참회 대상을 잘 파악할 수 없을 때 “상대방과 상황을 잘 살펴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라고 몇 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회 대상

여기서 참회 대상이란 위의 참회 기준을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의 참회 대상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나눠 보았으나 중복될 수도 있다.

-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 폭력이나 언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 잘못한 정도를 훨씬 넘는 과도한 처벌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근거 없는 말로 불교를 비방하거나 불자라는 이유로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
- 적은 피해나 고통이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 기타 생활하면서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일

참회 방법

참회 대상에 해당되는 일 한 가지를 기억해서 당시의 상황과 그 상황에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천천히 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다음에는 당시 자신의 올바른 대응 방법은 어떠해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사실을 참회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는 단순히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 참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그에 맞서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대응하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것이다. 즉 상대에게 따져야 하는데 따지지 못했다면 ‘따지지 못했음’을 참회해야 하고, 화를 내야 했는데 화를 내지 못했다면 ‘화를 내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회한다는 것이고, 말로는 “부처님, 참회합니다”라고만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해서 참회해야 할 때도 있다. 즉, ‘그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에 대응해서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러이러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혹은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앞에 있던 컵이라도 집어 던져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참회하는 것이다.

피해를 볼 당시 자신이 어떻게 했어야 옳았는지 잘 생각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위의 참회 기준을 몇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본 다음, 어리석었던 사실만 참회하고 일단 마친다. 그리고 내가 취했어야 할 바른 대응 방법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본다. 대응 방법이 쉽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참회를 하는 중에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부처님께 호소한다.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다가 얻어맞았을 때 자기 엄마에게 누가 자기를 때렸다고 일러주면서 호소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당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울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참지 말고 울어 버리는 것이 좋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마음을 밝히는 지혜, 오래 간직할 경전
소중한 분과 나에게 경전을 선물하세요
QR코드를 찍고 바로 주문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41,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3,5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3,5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34,000원
- 유마경
무비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25,500원
- 극락의 경전
보광스님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일지스님 옮김 | 12,500원

민족사 대표 경전을 고급 장정 세트로 만나보세요.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특별인터뷰

혜총 대종사 전 조계종 포교원장

“부처님은 우주 제일의 ‘메모리왕’”

첨단 과학기술의 본질이 곧 불교
‘일심(一心)’과 ‘화엄(華嚴)’의 이치
수십억 겁 저장 ‘메모리 왕’ 부처님
반도체, 팔만사천 번뇌 형상화 그릇
이건희 회장에게 전한 30년 전 화두
“AI시대, 상생과 분배의 지혜 필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혜총 대종사는…1953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범어사 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신문 사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인류의 일상까지 바꾸는 초과학의 시대다.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에 방대한 정보가 저장되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인다. 고도의 기술이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첨단 물질문명의 시대에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 감로사에서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혜총 대종사는 첨단 과학기술이 불교의 ‘일심(一心)’과 ‘화엄(華嚴)’의 이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8월 10일 감로사에서 혜총 스님을 만나 AI 시대에 바라본 부처님의 지혜, 그리고 30여 년 전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전했던 반도체에 관한 일화를 들었다.

반도체 본질은 ‘마음의 형상화’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기계 하나에 전화기, 사진기, 시계, 수만 권의 책, 그리고 전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씁니다. 그 생각하고 마음 쓰는 작용을 과학의 힘을 빌려 ‘물질’ 속에 집어넣어, 인간을 대신하게 만든 것이 바로 반도체 칩이고 인공지능입니다.”

혜총 스님은 현대 과학의 핵심인 반도체의 본질을 ‘마음의 형상화’로 정의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이 과학기술을 통해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이 ‘반도체’라는 설명이다.

“마음 씀씀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분화되면 하루에 5만가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8만4000가지 번뇌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떠셨습니까. 기계나 물질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이 우주의 이치와 기억을 온전히 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메모리 왕’이십니다.”

‘메모리 왕’ 부처님을 만나다

스님이 부처님과 반도체적 기억의 연결 고리를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은 1988년 무렵이다. 당시 스님은 외화 낭비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25년 동안 해외에 나가는 일을 마다했다. 은사 자운 스님이 국제 행사에 함께 가자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자운 스님께서 저에게 ‘혜총아, 이제 외국에 좀 가거라. 금생만 좋은 게 아니고 내생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생도 좋은 것’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경〉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수십억 겁의 전생 동안 행한 모든 선한 공덕과 수행의 과정, 수많은 생명으로서의 체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저장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생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의 경험을 밝은 의식으로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존재. 지혜가 곧 완벽한 ‘메모리’임을 깨달은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은사에게 삼배를 올리고 비로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회고했다.

“진짜 꽃과 희망은 반도체”

스님의 혜안은 훗날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의 인연으로도 이어졌다. 1994년 범어사 부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스님은 부산에서 열린 삼성자동차 기공식에 참석했다. 터 닦기 염불을 주관한 인연으로 이건희 회장과 식사를 함께하게 됐다. 정관계 인사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스님은 이 회장에게 물었다.

“여기에 삼성자동차를 굳이 시공해야 합니까.” 뜻밖의 질문에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이 회장은 스님에게 반문했다. “자동차 사업은 선친(이병철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동차 사업은 삼성의 꽃과 희망입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독일이 1위, 미국이 2위, 대만이 3위를 선점하고 있었고 한국과 일본은 4~5위권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엄청난 자본이 끊임없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스님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삼성의 진짜 꽃과 희망은 자동차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꼭 필요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더 연구하고 생산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과 우리나라를 반드시 부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삼성은 틀림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당시 자동차 산업에 쏠려 있던 시선을 반도체로 돌려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들어 그 이유를 덧붙였다.

“부처님이야말로 우주 제일의 기억력 왕이십니다.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 나오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즉 작은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하나에 엄청난 정보가 담기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혜총 스님은 벅찬 감회를 숨기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을 존경합니다. 대를 이어 반도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용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화엄의 과학

혜총 스님은 불교가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과학을 선도하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생각을 다 담고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메모리이고 AI입니다. AI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우주의 이치를 인간이 발견해 과학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선택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이 기술을 써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것, 멀고 가까운 것, 있고 없는 것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생은 이것을 자꾸 분별해 편을 가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시공간마저 하나입니다.”

기업 경영의 해답 ‘협동과 분배’

혜총 스님은 첨단 산업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 반드시 ‘지혜로운 분배’가 뒤따라야 한다며 ‘담비’의 생존 방식을 예로 들었다.

“작은 담비 일고여덟 마리가 힘을 합치면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을 잡습니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협동하는 것이지요. 사냥에 성공하면 이 담비들은 먹이를 공평하게 나눕니다. 정확한 분배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쳐 협동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오늘날 반도체와 AI 산업이 거두는 이익 역시 이와 같은 공정한 분배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가나 소수의 연구진이 이익을 독점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헌신과 기여도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조직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한 분배는 아니라고 했다.

“인생에 덤은 없습니다. 땀 흘리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성과급이 주어져야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보상 이후의 자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의 지혜요, 나눔 정신입니다.”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첨단 과학의 시대. 혜총 스님은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지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당부로 인터뷰를 마쳤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91호 | 14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안성시청 15분 거리
- 대지 : 약 2만 5천평
- 법당 5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종각 10평(목조), 요사체 60평 2동, 원두막 2동, 저장고 6평, 용궁 30평 분수대 있음.
- 특징 : 납골당 허가 (5천구) 토목공사 완료, 수목장 부지 5천평, 15년 장뇌산삼 밭 1000평 이상, 수목장 일부 운영중, 가족석탑 운영중, 전기차량 충전소
- 동물 농장 - 꿩농장, 기러기, 칠면조, 닭
- 과수 농장 - 대추나무 약 200평, 밤나무농장, 자두나무 농장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산사나무
- 가액 : 오십오억 (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합니다)

010-6538-722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세종시
- 토 지 : 511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가 액 : 4억

010-7112-0446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암자터 안내

- 대지 : 608㎡, 주위 텃밭 사용 해발 600고지, 조용한 자연환경
- 전기사용, 차량진입, 청정계곡물
- 토목 공사 및 축대 조성 완료
- 오시는길 : 청송 파천면 지경마을 회관서 직진 선덕암
- 가액 : 1억 2천만원

010-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3500만원

010-5316-5669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사찰 마이크 전문

美 MeCalley 유, 무선 마이크
전국 사찰 총판 !!



시중에 없는 최고급
美 Mecalley 무선마이크
◆ 1인용 : 350,000원
◆ 2인용 : 455,000원
(인터넷가 : 96만원)

염불전용 탁상 마이크



60cm 이상 거리에서 힘있고, 맑은소리 자체에서 소리조절
◆ 가격 : 155,000원

MeCalley KSM-97S



최고급 프로용 유선마이크
휴대용 알미늄가방 증정
◆ 가격 : 195,000원



초 원거리 염불전용
日製 유선 콘덴서마이크
◆ 가격 : 125,000원

취 급 품 목
사찰, 앰프설치, 이전전문
각종 앰프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제조, 판매
대출력 특수 스피커 제작

사찰음향컨설팅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9 (406호)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91호 | 15 | 전면광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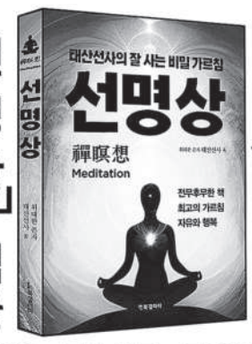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꼭「선명상」책을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우주광명 누진통

- 지금은 우주불교시대
- 지금은 천존 천신의 시대
- 새로운 불교 수행법

단 10분에서 1시간이면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끊어져 무념 무상이되고 해탈이 되는것을 그 즉시 느끼고 깨달음이 이루어 집니다.
일광사 일광선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1길 17~39
010-3586-6091

미래 철거 디자인

- 법당 철거
- 사찰 정리
- 유품 정리
- 가정집 정리

부산 : 이주현
010-5507-7080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바라·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해동율맥 아일다율원 학인모집 공고

담양 용화사에서 한국 불교의 핵심 의례인 '계율'의 전통을 계승할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 과정 안내
   • 사분율장 : 오전 10시~ 오후 2시까지(점심시간 포함)
2. 개강일시 : 2026년 9월 9일 매주 수요일
3. 수 강 료 : 매월 20만원 (교과서 별도)
4. 지원자격
   - 기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족계(타종단가능)를 수지한 자
   - 불기 2570(2026)년 구족계 수계 예정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원 소정양식)
   - 승적증명서 및 수행이력서
   - 수계증사본
   - 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
   - 반명함 사진 2매
6. 접수 및 문의 : 담양 용화사 종무소 061)381-2683
   아일다 율원장 도월 수진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국내 최초 슬로우조깅 전용 설계

관절 부담은 덜고 매일 30분, 더 가볍게

40~60대를 위한
슬로우조깅화



화이트 · 브라운 · 블랙

정가 85,000원
판매가 75,000원

오늘부터 슬로우조깅을 시작하세요
마하몰 1688-9099
www.mahamall.co.kr

AI 알고리즘, 각자의 업을 비추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⑯ 사람을 차별하는 AI?

AI는 누구의 마음을 학습했는가

2023년 2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미국 디트로이트 교외, 서른두 살의 흑인 여성 포샤 우드러프는 두 딸의 등교 준비를 하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섯 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강도와 차량 탈취 혐의의 체포 영장이었다. 우드러프는 임신 8개월이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한다. 부풀어 오른 배를 손으로 짚어 보였다. 영장에 첨부된 CCTV에 찍힌 범인 사진은 누가 봐도 임신한 몸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장은 이미 나와 있었고,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수갑을 찼다.

유치장으로 호송된 그녀는 요통과 경련 속에서 열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병원으로 실려 갔고, 탈수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를 취하했다. 황당하게도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주유소의 흐릿한 CCTV 영상을 경찰의 얼굴인식 시스템에 통과시켰더니, 그녀의 오래된 머그샷이 후보군에 올라왔던 것이다. 경찰은 그 사진을 목격자에게 보여줬고, 목격자가 그녀를 골랐다.

영장은 그렇게 발부됐다. 임신한 몸이라는, 눈앞의 사람이라면 놓칠 리 없는 사실을 시스템은 분석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아는 것은 픽셀의 배열이 비슷하다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집계에서 우드러프는 얼굴인식 오류로 부당하게 체포된 여섯 번째 미국인이자, 그 가운데 첫 여성이었다. 여섯 명 모두 흑인이었다. 2026년 4월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열세 명으로 늘었고, 그 대다수는 여전히 흑인이다.

우연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 쏠림 현상은 사실은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대규모 평가에서 얼굴인식 알고리즘이 흑인 여성에게 백인 남성보다 수십 배 높은 오탐률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확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은 이 체포가 "여러 이유로 우려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드러프의 민권 소송을 기각했다. 경찰이 그녀를 체포할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람을 픽셀로 인식하는 AI 시스템에 대해, 법은 아직 알고리즘을 심판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하다.

이런 종류의 AI 시스템에서 흑인의 얼굴에 관한 인식 오류가 빈번한 이유는 사실 복잡하지 않다. AI가 학습한 얼굴 사진의 대부분이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주어진 대로 학습했을 뿐이고, 그 데이터에는 흑인의 데이터 표본이 부족했다. 일부러 흑인으로 오인하라고 알고리즘 설계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AI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AI가 무엇을 학습했는가에 있다.

변수를 지워도 얼룩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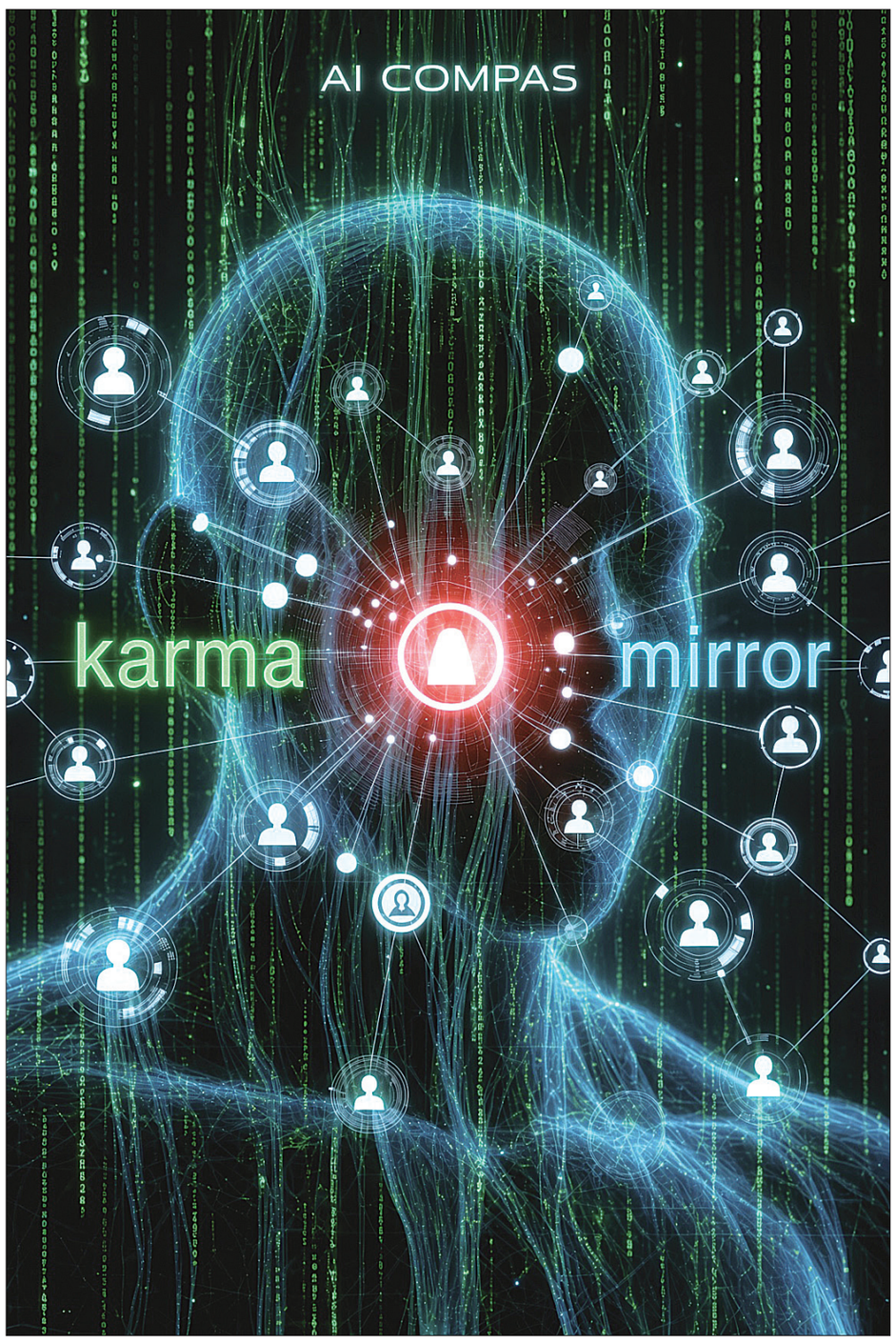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다. 민감한 변수를 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인종 칸을 없애고 성별 칸을 없애면 차별도 사라지리라는 기대다. 현실은 그 기대를 자주 저버려 왔다.

2019년 '애플카드' 논란을 떠올려 본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아내의 신용 점수가 오히려 더 높은데도, 남편에게 스무 배나 되는 신용 한도가 주어졌다는 폭로가 있었다. 뉴욕주 금융 당국의 조사는 발급사가 성별을 변수로 쓰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이 남긴 물음은 오히려 그래서 더 심각해졌다. 성별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뜻일까. 소득의 흐름과 소비 패턴, 직업의 분포 같은 우회 변수에는 이미 성별이 스며들어 있다. 이름표를 뗀다고 얼룩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 우회로가 한 사람의 자유를 좌우한 사례도 있다. 미국의 여러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해 온 '재범 위험도 알고리즘 콤파스(COMPAS)'가 그것이다. 2016년 프로퍼블리카의 탐사보도는, 이 시스템이 흑인 피고인을 백인보다 거의 두 배나 높은 비율로 '고위험군'에 잘못 분류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인종은 변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체포 이력'이라는 데이터 안에는 이미 과잉 단속의 역사가 깊이 새겨져 있었고, 알고리즘은 그 흔적을 '위험도'라는 숫자로 옮겨 적었을 뿐이다.

> 우드러프, 얼굴인식 오류로 부당 체포
> 흑인 얼굴인식 오류가 빈번한 이유는
> AI 학습 얼굴 대부분이 백인이기 때문
> 데이터는 집단으로 쌓은 업의 퇴적층
> 약자 품는 마음이 AI의 미래 결정할 것



AI가 스스로 업의 증폭기가 될 것인지, 정견(正見)의 거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흔적을 직시하고 부끄러워하며 밭을 갈아엎을 것인가, 소송을 기각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돌리며 흔적만 가리고 돌아설 것인가. 알고리즘을 설계하면서 누가 소외돼 있는지 살피는 마음, 가장 약한 이의 고통이 통계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지 들여다보는 마음이 AI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미지 출처=Grok 생성 이미지

업의 증폭기인가, 거울인가

초기 경전 〈맛지마니까야〉 '업 분별의 짧은 경 (MN135)'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중생은 자신을 업을 소유하는 자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고,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이다. 업이 중생들을 나누어 천하고 귀한 상태를 만든다."

업이란 어떤 신비한 형벌 장부 같은 것이 아니다. 의도를 지닌 행위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시 조건이 되어 다음 행위를 물들이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가르침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위에 겹쳐 놓으면 윤곽이 또렷해진다. 데이터란 무엇인가. 한 사회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선택과 배제의 기록, 곧 집단으로 지어온 업의 퇴적층이다.

AI는 그 퇴적층을 학습한다. 그러니 알고리즘이 임신부에게 수갑을 채우고 여성을 남성보다 신용도가 낮다고 간주할 때, AI가 새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가 지어온 것을 상속받아, 전에 없던 규모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유식(唯識) 전통은 이 상속의 구조를 한층 정밀하게 그려두었다. 모든 경험은 마치 일종의 씨앗[種子]이 되어 심층 의식인 알라야식(阿賴耶識)에 저장되고, 조건이 무르익으면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행위와 판단으로 드러난다[現行].

인종 칸을 지워도 체포 이력을 통해 인종이 스며드는 일, 성별 칸을 지워도 소비 패턴으로 성별이 배어나는 일이 꼭 그렇다. 의식의 표면에서 지운 것이 심층의 씨앗까지 지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어 온 손은, AI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다. 물론 업을 숙명으로 읽는 것은 불교에 대한 오해다. 업이 연기(緣起)의 법칙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흐름도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겠지만, 어떤 밭에 어떤 물을 주느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의 편견은 좀처럼 본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목격자는 자신이 본 대로 지목했다고 믿고, 카드 회사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마음이 알고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처음으로 통계라는 자국을 남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좀처럼 잡히지 않던 분별심(分別心)이, 숫자가 되어 눈앞에 놓이는 것이다.

AI가 스스로 업의 증폭기가 될 것인지, 정견(正見)의 거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흔적을 직시하고 부끄러워하며 밭을 갈아엎을 것인가, 소송을 기각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돌리며 흔적만 가리고 돌아설 것인가.

알고리즘을 설계하면서 누가 소외돼 있는지 살피는 마음, 가장 약한 이의 고통이 통계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지 들여다보는 마음이 AI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 알고리즘은 우리 각자의 업을 비추는, 유례없이 크고 정직한 거울로 이미 우리 앞에 서 있다. 남은 것은 거울 속 얼굴을 마주할 용기다. 그 용기를 내는 자리에서, 비로소 AI 알고리즘은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길을 묻는 연(緣)이 된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수미단에 담긴 불교적 상상력과 포용력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⑯ 팔공산에 사는 물고기, 화상어(和尙魚)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상단부 화상어.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하단부 화상어.

중국 명나라 백과사전 〈해어〉에 첫 기록
인두구신 형상, 〈삼재도회〉서 명칭 등장
일본서는 바다의 괴물 '해방주'로 오인돼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서 2종 확인



삼재도회 도설 화상어(중국 명대 1609년경).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은 역시 팔공산(八公山)이다. 예로부터 팔공산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믿음이 전한다. 이에 신라는 팔공산을 오악(五岳)의 중심인 중악(中岳)으로 채택했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

이와 함께 팔공산 지역은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잦은 쟁탈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려의 왕건(王建)이 후백제의 견훤(甄萱)에게 무참히 패한 팔공산 전투는 이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일화일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서린 팔공산 곳곳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사찰과 불교 신앙이 자리 잡았다. 동화사(桐華寺)와 은해사(銀海寺) 같은 큼직한 대찰들이 팔공산에 터를 마련한 것부터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기도 성지로 각광받는 관봉석조여래좌상(冠峰石造如來坐像), 우리나라 최초의 석굴사원인 군위삼존석굴(軍威三尊石窟)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일대의 불교 신앙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오직 팔공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바로 '화상어(和尙魚)'라는 상상 속 동물이다. 중국 명나라 백과사전에 처음 기록된 화상어는 동해 먼바다에 산다고 전해지는 상상 속 물고기다.

그렇다면 화상어는 어떤 이미지와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미술에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의 스님

화상어는 말 그대로 스님을 뜻하는 화상(和尙)과 물고기를 뜻하는 어(魚) 자의 합성어다. 그렇다면 그 생김새는 어떠하며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 가장 이른 기록은 중국 명나라 학자인 황충(黃衷)의 〈해어(海語)〉로 알려져 있다. '바다의 언어'라는 뜻을 지닌 〈해어〉는 당시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백과사전이다.

여기서 화상어로 추정되는 생물은 '물괴(物怪)' 편에 등장하는 '해화상(海和尙)'이다. '물괴' 편의 해화상은 "사람 머리에 자라의 몸을 지녔으며, 발은 길지만 껍질은 없다"고 기록돼 있다. 사람 머리에 자라 혹은 거북 몸을 지닌 일명 '인두구신(人頭龜身)'이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전편에 살펴본 인어에게도 찾아보지 못한 독특한 형상이다.

이후, 화상어라는 공식 명칭은 1609년 중국 명대 학자 왕기(王圻)가 편찬한 백과사전인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재도회〉에는 "동쪽 큰 바다에 사는 화상어는 용모가 자라와 같고 빛깔은 붉으며, 조수(潮水)를 따라온다"는 설명과 함께 민머리에 거북 몸통을 지닌 이미지로 등장한다. 여기서 화상이라는 명칭은 아마도 민머리로 표현된 사람 머리가 스님을 연상시키는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이 바라본 화상어 인식

일본에도 화상어가 있을까? 물론이다. 앞서 살펴본 〈삼재도회〉는 에도시대 무렵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1715년경 의사였던 데라시마 료안(寺島良安)이 자국 문화에 맞춰 재구성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했다. 여기에 수록된 화상어 이미지와 기록을 찾아보면 앞서 살펴본 〈삼재도회〉와 거의 똑같지만 '해방주(海坊主)'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한다. 아마도 당시 일본인들이 화상어에게 붙인 별명인 것 같은데 과연 해방주란 무엇일까?

'우미보즈(うみぼうず)'라고도 불리는 해방주는 일본 문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이다. 그 이미지는 물고기 머리에 사람 몸을 지닌 형태로도 등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례는 그림자를 연상케 하는 검은 모습에 민머리를 지닌 거인의 형상이다. 예로부터 배를 침몰시키고 어민들을 괴롭힌다고 알려진 해방주는 섬나라인 일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당시 〈삼재도회〉를 분석한 데라시마 료안의 시선에서 화상어는 생소하고도 괴이한 이미지였을 것이고, 민머리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 화상어를 자국의 바다 괴물과 연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괴의 나라 일본, 그 속에서 화상어는 민머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바다 괴물로 오인되는 슬픈 일을 겪게 된다.

불교미술에서 다시 태어난 화상어

조선에도 〈화한삼재도회〉는 전해지게 됐고, 당시 왕실부터 실학자, 불교계까지 다양한 계층에 유통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불교와 무관한 상상 속 동물인 화상어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로 재탄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영천 은해사 백흥암(百興庵) 극락전 수미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17세기 제작된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은 화려하고 섬세한 장엄 문양과 함께 응룡(應龍), 마갈어(摩竭魚), 인어 등 여러 종류의 상상 속 동물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화상어는 측면 위아래로 총 두 마리가 확인된다. 먼저 아래쪽 화상어는 붉은 바지만을 입은 반라에 흰 점을 찍어 처리한 귀갑이 달린 동자의 모습이다. 두 발로 선 화상어 손에는 화염 줄기가 달린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데 혹여 보주가 떨어질세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받친 뒤 위를 향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불교 도상에도 확인되는 사례로 보주를 불·보살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공양도상(供養圖像)이다. 부처님에게 바칠 보주를 소중히 다루는 귀여운 행동인 것이다.

아래쪽 화상어가 귀여운 매력을 지녔다면 위쪽 화상어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우선 사람 얼굴에 거북 몸을 지닌 것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두 발로 선 아래쪽 화상어와는 달리 네발로 기고 있어 짐승에 더욱 가깝다. 꼿꼿이 선 네 다리 주변에는 화염 갈기가, 세 발가락에는 날카로운 발톱까지 달려 있어 마치 괴수 같은 느낌도 든다. 위쪽 화상어의 또 다른 특징은 얼굴 표현을 들 수 있다. 할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어르신 얼굴을 한 머리에는 붉은 바탕에 술과 깃털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 정말로 독특하다.

그렇다면 화상어가 쓴 깃털 장식 투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조선 후기 불교회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회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존상 가운데 사천왕(四天王)과 팔부중(八部衆) 등 부처님을 지키고 깨달음을 구하는 신중(神衆)들이 쓴 투구가 바로 화상어가 쓴 깃털 장식 투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불교와 무관한 상상 속 동물인 화상어에게 불교 고유의 미술적 요소를 접목한 승려 장인들의 아이디어라, 정말이지 기발한 창의력이 엿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상어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위에서 살펴본 사전류를 참고한 당시 승려 장인들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수미단이 상징하는 불국토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노닐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칫 낯설 수도 있는 화상어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불교 요소들을 차용해 대중에게 친숙함과 길상의 효과까지 전하고자 했다. 이러한 참신한 의도뿐 아니라 불교계의 포용력과 자비심까지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화상어인 것이다.

마치며

중국 명나라 백과사전에 처음 등장한 화상어는 중국문화 속에서 그다지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화상어가 일본으로 건너가 처음 받은 시선은 긍정적인 시선이 아닌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괴물이라는 슬픈 오해였다. 이랬던 화상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례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이다. 당시 불교의 자비와 포용을 그대로 실천했던 승려 장인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수미단을 마음껏 노니는 존재로 화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화상어가 확인된 불교미술의 사례가 국내에서는 팔공산 지역뿐이긴 하다. 다소 아쉬운 일이긴 하나 이 또한 그들만의 고유한 보금자리일 것이니, 무더위가 누그러질 때쯤 화상어를 만나러 팔공산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김용덕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전화상담시 전문지도
신기어린 소리! 성우같은 소리! 가창력 향상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이미 존재만으로 빛나는 우리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㊴ ‘미지의 서울’(2025)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얼굴은 같지만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꾸어 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삶의 시선을 바꾸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언제부터인지 쌍둥이를 태운 유모차가 부쩍 많아진 느낌이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통계상으로 대략 1% 정도였던 한국의 쌍둥이 출생률이 2015년에 3.7%까지 올랐고, 2024년에는 5.7%까지 늘었다고 한다.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난임 문제로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이들의 삶도 외모처럼 같거나 비슷하게 펼쳐질까?

충청도의 시골 마을 두손리에 사는 유미지(배우 박보영)는 중학교 때부터 단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하며 체육 특기생을 꿈꾸던 소녀였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부상을 입고 육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3년 가까이 방 안에서 은둔 생활을 이어간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코 문을 열지 않았던 미지. 어느 날 여전히 미지를 설득하던 외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데, 집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

미지에게는 유미래(배우 박보영)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 엄마조차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긴 미지와 미래지만, 둘의 삶은 정반대에 가깝다.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미지와 달리 미래는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았다.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던 미지와 달리 미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할 만큼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시험 운이 나빠 원하던 1순위 대학에 가지 못했고, 행정고시도 3년의 도전 끝에 포기한다. 지금은 공기업인 금융관리공사에 취업해 변함없는 집안의 자랑으로 살고 있다.

어릴 적, 이들 쌍둥이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정식을 뗀 미래는 하루에 네 번씩 한약을 먹는 일이 고역이었다. 반면 흙을 퍼먹어도 건강한 미지는 4학년이 돼서야 구구단을 떼었을 정도이니, 수학 문제 푸는 일이 끔찍하게 싫었다.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던 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대신해 주기로 약속한다.

미지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미지가 되기를 몇 차례 반복했을 즈음, 둘의 발칙한 비밀은 곧 엄마에게 들통나버린다. 그 결과 미지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것으로 둘의 외모가 구별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서른이 된 미지와 미래. 미지는 요양원의 외할머니를 보살피며 고향에서 ‘프로 단기계약직’으로 살고 있고, 미래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다.

회사의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전략팀에서 ‘에이스’로 일하던 미래는 부서 상사의 비리에 맞서 내부 고발을 한 동료의 편에 섰다가 직장 내 괴롭힘의 타깃이 돼 1년 동안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진 미지가 베란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순간, 서울까지 반찬을 들고 불쑥 찾아온 미지가 가까스로 미래의 손을 붙잡지만 둘 다 떨어지고 만다. 다행히 3층 높이인 데다가 미래가 화단 위에 미리 던져놓은 이불까지 있어서 큰일이 나지는 않았다. 그 후 미래의 사정을 들은 미지는 어릴 적 비밀 약속을 다시 꺼낸다. “대신해 줄게, 옛날처럼. 네가 너로 살게. 넌 나로 살아.”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꾸어 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쌍둥이는 외모가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으리라는 예상을 하기 쉽지만 미래와 미지는 성격은 물론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두 사람에게 놓인 과제는 같지만 다른 미래와 미지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래야 능수능란하게 ‘미지인 척’, ‘미래인 척’ 연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이처럼 ‘미지의 서울’은 드라마 전반에 걸쳐서 ‘하나’와 ‘둘’이라는 수를 통해 끊임없이 같음과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혀 다를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동창 이호수(배우 박진영)와 미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호수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며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란 외동아들이지만, 미지는 능력 있는 언니 미래와 비교당하며 사는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다. 하지만 호수와 미지 모두 아버지 없이 자란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고등학생 때 부상으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칩거했던 미지는 교통사고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호수와 비슷한 아픔이 있다. 호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미지는 다친 다리를 하고도 산에 오르는 호수를 묵묵히 기다려주며, 외할머니가 자신을 방에서 나오도록 한 것처럼 호수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준다.

얼굴 빼고 모든 게 판이한 쌍둥이 자매 인생 맞바꾸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과 자신과 삶을 향한 시선 전환 내용 담아 서로 달라 보여도 본질은 다를 것 없어



드라마 ‘미지의 서울’ 포스터. **사진 출처=tvN**

드라마의 이런 주제 의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때 시인이었던 로사식당의 사장 김로사(배우 원미경)의 사연이다. 미래가 다니는 금융관리공사에서 사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중인데, 끝까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로사. 미래를 대신해 회사에 다니던 미지는 사무실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을 견디다 못해 로사를 설득하는 일을 맡지만 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다. 우여곡절 끝에 로사의 기금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닌 호수의 도움을 얻어 로사와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데, 로사의 정체가 젊은 시절 ‘진짜 로사’를 죽이고 그녀의 삶을 훔쳐 산 ‘현상월’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로사가 궁지에 몰린다.

식당을 고스란히 뺏길 상황에서 로사의 삶을 대신 살아온 상월은 호수와 미지에게 직접 자신의 사연을 들려준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로사와 상월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였다. 먼저 결혼한 로사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젖먹이 아들과 상월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남편에게 들켜 다툼 끝에 로사가 남편을 해치게 됐다. 상월은 아들을 키워야 하는 로사를 위해 죄를 덮어쓰고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다. 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살인자’라는 이유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상월은 로사와 함께 살면서 명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로사의 이름을 사용했다. 암에 걸린 로사는 상월에게 계속 로사로 살라고 당부하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상월에게 넘긴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난독증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월은 로사의 유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 로사로 살면서 번 모든 돈을 정신병을 앓던 로사의 아들 병원비와 대학교에 기부하며 살아왔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중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다. 야누스는 머리 뒤에도 얼굴이 있어서, 앞뒤의 얼굴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두 얼굴을 가졌다는 점에서 보통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원래 야누스는 ‘문의 신’이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지킬 때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머리에 두 개의 얼굴이 있는 모습이 됐다고 한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쌍둥이인 미지와 미래, 자매보다 더 깊은 친구였던 로사와 상월이 서로를 위해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와 둘의 문제를 진중하게 전하는데, 주제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 ‘문’이다. 문의 신에게 얼굴이 둘인 것처럼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 절망 속에서 방 안에만 칩거했던 미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세상은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나만 비정상인 것 같은 생각, 세상은 아름다운데 나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문을 나서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이(不二), 둘이 아님’을 가르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고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의 모습을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며 나만의 방에 갇혀 있다면, 얼굴을 밖으로 향하여 그저 방문을 열고 나서면 그만이다. 거기에는 누가 더 잘날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모자라지도 않은, 이미 존재 자체로 빛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일일시호일

가족 위해 버틴 13년 한국살이, 신장암 앞에 멈춰
“다시 일해 아내와 두 아들 돌보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만줄라 씨, 홀로 한국서 생계 부양
병원비 4000만 원…앞으로 치료도 큰 부담
한 가정 무너지지 않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이 공부를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칠석하고 백종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칠석을 지내셨는지 궁금하군요. 칠석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또 백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칠석이다 하면 칠은 우리 몸 자체와 마음 자체를 말하고, 석은 그 마음이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이라고 해도 되고, 아침 저녁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켤 때나 끌 때나, 이런 것이 바로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듯이, 즉 말하자면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을 끄는 마음이나 같이 엮어서 마음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아침도 현재 내 마음속에, 저녁도 현재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없는 마음, 그 마음에서 발견해서 밝히면 칠석(七夕)이 칠성(七星)이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견우와 직녀도 그렇게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쓴다고요. 일 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 년이지만 그 별성에서 생각할 때는 일 초, 하루를 뜻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 수명이 일 년이면 거기서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한다면. 아무튼 여기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지어 놔도 해당이 되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이다, 방편이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년, 하루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룻동안, 24시간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동해야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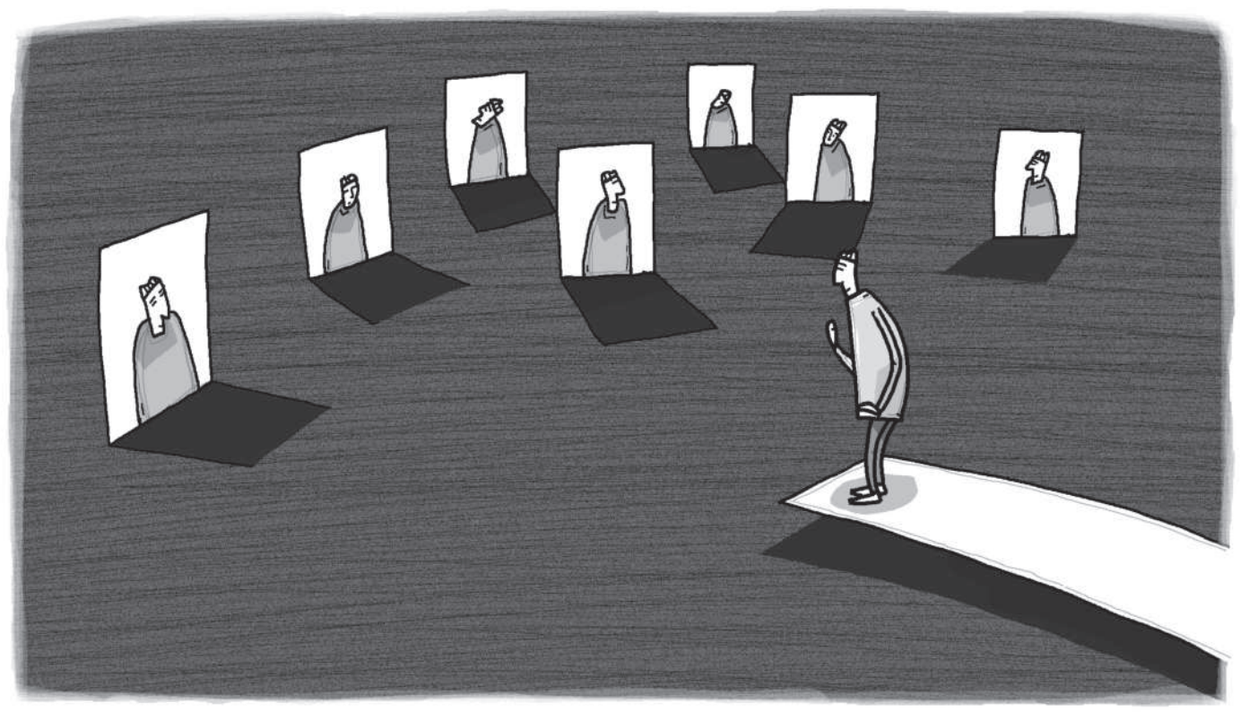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사생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모든 만물만생이 다 견우 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듯이 모두가 이렇게 인연이 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안 가십니까? 이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도 될 수가 없고요.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명을 또는 생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칠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백종에 건질 수가 없어요. 왜 목련존자를 비유해 놨을까? 목련존자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도 열반의 구경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지옥문을 열지를 못해서 어머니를 건지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가서 부처님한테 구하니 다시 정진하라고 그래서 다시 정진해서 지옥문이 스스로 열렸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칠석이다 하는 날은 항상 나한테 숨어 있는 그 마음, 깊숙하게 들어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라,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깨달아야만, 칠석에 깨달아서 칠성이 돼서 그 마음의 불을 밝힌다는 뜻이죠.

백종은 아침과 저녁 이것이 한데 모아진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일체 만물만생의 모든 영령들을 건질 수가 있는 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도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려야 건질 수가 있지,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못하면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북하면 백종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백종을 그냥 돈이나 갖다 놓고 영령들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스님네들의 힘을 빌려서 한다 하면 스님네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상대방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건져지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둘로 보고 그렇게 보니까 이 봉투에다 돈이나 넣어서 이름이나 써서 갖다 놓으면 영가가 천도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마시고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육의 조상들과 둘이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내 부모들의 조상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상들의 마음도 내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게 탄생이 되든지 승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만 된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항상 부모와 일체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한마음 속에서만이 빚어진다,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전체 한마음에서 들이고 내진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도 그 마음을 내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넣는다면 둘로 봐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부모들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의 자기 마음을 훤히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도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툭 터져서, 삽시간에 물리가 터져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칠석이 그런 마음의 도리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아예 불도 밝게 일어날 수가 없거니와 조상들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데도 아까 견우와 직녀 얘기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됐습니까? 하하하. 여러분이 다 견우와 직녀라고요. 딴 데,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견우와 직녀고,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연이 많다지만 그 만남도 즐거웁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즐겁지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허허허. 그건 그렇게 해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우와 직녀 속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 속에서도 벗어나게.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그냥 훌렁 벗어나게끔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도 아침 저녁이 한데 모아져서 공해 버렸다. 공했으면 그 공한 도리를 알 때는 그냥 무(無)다. 무조차도 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도리를 알았을 때는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나가는 데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산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저절로 나옵니다. 스스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고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은 거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이 팥이 될 수가 없고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 우리가 걸음 걷듯 그렇게 놓고 돌아가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팥이 콩이 될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흑인이 흑인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가는데, 까만 초콜릿을 입에 물려 가지고 가는데 너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흑인은 백인을 낳을 수가 없어.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 하나하나 자기가 살아나가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냥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면 좀 감춰서라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건 감추고 자시고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 법계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곧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인데 한마디 더 하자면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오죠. 지옥이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의 생각과 말이나 소가 됐을 때에, 속으로는 사람으로 살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죽으로는 말의 모습을 가졌을 때, 소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개구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독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벌레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 답답함이란 어떻겠습니까? 달리 지옥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영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탄생을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령들의 의식은 첫째, 살아서 의식을 가졌을 때에 '나'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도 항상 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데는 자기 몸속의 의식들이 전부, 이 수십억 마리가 그냥 깔려 있으니 한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이거야,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강을 사이에 놓고 건너가지 못해, 빠져 죽을까 봐. 그러니까 물가를 뺑뺑 돌면서 오백 년을 돌아도 배가 오질 않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바퀴를 넘어서야 될 텐데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또한 '나'라는 걸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만 알면 나라는 게 공해 버려서 무조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걸 팽개치게 될 텐데, 그거를 놓지 못해서 항상 그 업식에 밟혀서 못 나오고, 자기 의식대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나오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이래서 자기의 갈 길을, 궤도를 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넘기보다는 살아서 깨달아야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 깨달음이 열반이지 죽어서 혼백이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말도 할 것이 없죠. 살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으면 살았을 때 그 업식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우리가 발자취를 걸머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 놓고 하나 떼어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떼어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일체 만법이 다 우리가 걸음 걷듯이 그렇게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항상 얘기해 드리죠, 그렇게 놓고 간다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형님 노릇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니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공한 도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 땐 실감이 안 납니다. 자기가 진짜로 지옥고에 들어서 봐야 정말이지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 아들을 두었는데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얼마나 청개구리 짓을 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나 죽으면 산에다 묻어 다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물가로 갈 줄 알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니까 아이, 살아생전에 영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어서나 말을 듣겠다고 아, 산으로 올라가지 뭡니까? 그런데 막내아들한테는 "나를 죽으면 물에다 넣어 다오. 관을 물에다 넣어 다오." 그랬죠. 그러다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깐 막내아들이 밤중에 몰래 지게를 대어 놓고는 관을 져다가 강물에 갖다 넣는데 그냥 쩍 벌어지면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모조리 죽고 막내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저승 천자가 되시고요, 아들들은 죽어서 소가 됐어요. 소가 되어서 전부 외양간에 매여 있는데 막내아들이 꿈을 꾸니까, 환경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꿈을 꾸니깐 "음매"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러니깐 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저거는 너의 큰형이다, 저거는 너의 작은형이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남을 해코지를 하고 그랬으니, 소가 돼서 남의 일을 봐줘야 되고 언짢은 일 한 거를 다 저걸로 갚아야 하느니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소 무명을 쓰고 나왔으니 자기는 "음매, 음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죠.

실지로 자기가 당해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 철 날 동안에 열심히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치 말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남의 원망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그게 바로 내 마음 발견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그 한 구멍에, 두 구멍도 아닙니다. 구멍 없는 구멍에다가 모든 거를 놓으면 거기서 일체 만법이 나고 일체 만법을 거기다 놓고….

이런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전체 살아나가는 게 여러분이 살지 딴 사람이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다니면서 모든 걸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길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일도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 보태 주거나 뺏어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齋) 지내는 도리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저 최 씨라는 분이 천도를 시킨다고 절마다 다 다니면서 해도 천도가 안 되더랍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서는 보따리를 들고 저 길 나가다가 도로 들어오고 도로 들어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온 겁니다, 이제. 그래 지내고 싶으면, 거기 깔고 앉았던 방석 있죠? 거기다가 놓고 절하고 가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 그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냥 차려놓고 지내도 안 되는데 아니, 방석에 놓고 그냥 저 방석에 하고 가라고 이러니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꺄우뚱하면서 거기다 놓고 갔습니다, 절을 하고.

> **그저 한 철 날 동안에 열심히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치 말고,**
>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발견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오더니만 "아이고, 천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고마운 사례로 얼마를 갖다가 거기 방석에 또 놓더군요.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아니,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모시고선 그냥 구름을 타고 다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럭하고 난 뒤에 그 집이 최 씨네 가문이 일어난 겁니다. 가발 공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주 그게 그냥 담뿍 그때 일어나서 큰 부자가 됐죠.

그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님네들이 절에서 보통 이렇게 차려놓으면 스님네들이 어느 만큼 차려놨다는 걸 영령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령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스님네들 마음부터 보거든, 마음부터 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상 차려놓은 거하고, 돈 얼마 가져온 거하고, 돈 얼마 놓은 거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알지, 뭐, 영명(靈明)하죠.

그러나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탁 소리는 우주 법계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탁 열렸으니깐 상을 안 차려놨어도 그렇고 차려놨어도 그렇죠. 모든 게 내 거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아니, 그 영령들이 그 스님네들의 마음에 탁 가서 하나가 됐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한데 합쳐져도 두드러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풀려서 제도가 돼도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재사 지낼 때, 여기서 천도재를 지낼 때 물건을 많이 사다가 상에 온통 쌓아 놓고 지내야만 잘 지내 주는 걸로 아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사면 '아이, 물건도 안 사는데 뭐, 돈, 이것만 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습을, 아까 얘기했듯이 일차적으로 그렇게 독사의 무명을 타고 났거나 또는 어떠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극매고 있는 그런 지옥고를 범했을 때, 이 공부 하면서 그것을 면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거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콩 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 지옥고입니다. 오간지옥고니 하는 그 오간지옥이란 것은 땅속에서 파먹고 땅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그러니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그 마음, 즉 영령을 탁 건져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 놓는다면 금세 제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형제의 그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가 하면,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건지려고 지내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8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⑮ 지금 마음 알아차리기

어디서든 다르지만 모두 '나'

친언니가 짐을 쌌다. 휴가 기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결국 언니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내가 일을 놓지 못해서였다. 언니가 먼저 말했다. "그냥 혼자 갈게. 너 일해." 뭐라고 붙잡을 수가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즈음 나는 며칠째 발 뻗고 편히 자지 못했다. 국악과 명상을 주제로 한 방송 녹화를 앞두고 있었다. 거기다 곡 작업 마감과 논문 수정까지 겹쳤다. 집에 오면 예민해져서 가족들이 "좀 쉬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 상태로 녹화 날이 왔다. 처음에는 긴장을 감추려고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말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다 녹화 중에 스님이 말씀하셨다. "밝으신 분 같아요." 고맙다고 웃었지만, 선뜻 "네, 맞아요"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요즘의 나는 그다지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째 잠을 못 자고, 함께 보내기로 한 휴가마저 놓친 내가 밝다는 소리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묘하게 홀가분하면서도 이상했다.

나는 밝은 사람일까, 예민한 사람일까

무대 위에서는 긴장을 감추는 데 익숙했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에너지가 넘쳤다. 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피곤함도 짜증도 숨기지 못했다. 어느 모습이 진짜 나인지 가끔 헷갈렸다.

돌이켜 보면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일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다. '이 논문만 끝나면, 이 곡만 마치면, 이것만 해놓고 만나야지' 하며 미뤄 왔다. 가족들은 일만 하지 말고 친구도 좀 만나라고 했다.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동안 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일을 방해하는 시간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 한편에는 조급함도 있었다. 잠깐 손을 놓으면 해야 할 일들이 그대로 쌓여 있을 것 같았고, 하나를 끝내도 곧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을 마치면 쉬어야지' 했지만, 그 '마지막 일'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미뤄둔 것은 약속만이 아니었다. 쉬는 시간도,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내 마음을 살피는 일도 자꾸 다음으로 밀렸다.

그런데 방송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나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쏟아놓는 동안 나는 제법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일할 때의 집중과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벼움이었다. 혼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도 했다.

같은 곡 연주해도 소리 늘 같지 않아

가야금을 배우며 선생님들에게 종종 들었던 말이 있다. 같은 곡을 연주해도 소리는 늘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연주자가 살아온 경험과 그날의 마음에 따라 같은 선율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연주자의 삶이 소리에도 묻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마음이 가벼운 날에는 같은 곡도 또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 연주자의 마음뿐 아니라 소리를 둘러싼 조건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공간에서 연주하느냐에 따라 울림이 달라지고, 함께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소리의 결이 달라진다. 같은 손가락, 같은 줄인데도.

곡·논문 작업에 치여 잊었던 나 돌아봐

관계·상황 따라 마음과 내 모습 달라져

명상 통해 오늘의 마음 들여다보려 해

그렇다고 그중 어느 것만이 진짜 가야금 소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모두 같은 가야금에서 나온 소리이고, 그때마다 연주자의 마음과 주변의 조건이 달랐을 뿐이다.

가야금의 소리를 생각하다 보니 불교의 연기(緣起)가 떠올랐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홀로 독립돼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 생겨나고 변화한다고 본다. 사람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혼자 있을 때의 나와 무대 위의 내가 다르고, 마감 앞의 나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의 내가 다르다. 그중 하나만 골라 "이것이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마음 먼저 들여다보려 해

나 역시 예민한 모습을 없애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밝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왜 지금 이렇게 날이 서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얼마나 잠을 잤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사람들과 마음 편히 이야기한 것이 언제였는지.

어쩌면 내게 명상은 그런 시간인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를 서둘러 바꾸기 전에, 먼저 알아차려 보는 시간 말이다. 예민한 마음이 올라왔다고 해서 곧바로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 그 대신 오늘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잠시 들여다보는 것 말이다.

가야금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조율을 한다. 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줄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잘 맞았다고 오늘도 같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연주하기 전 다시 한 줄씩 소리를 듣는다. 조율은 지금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오늘의 나를 단정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들여다보려 한다.

며칠 뒤 언니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방에서 나갔다. 며칠 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 짐 하나를 받아 들었다. "잘 다녀왔어?"

웃으며 묻고 있는 나를 보니 조금 우스웠다. 그날의 나는 꽤 밝았다.

가야금 명상곡 'Dopamine'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⑱ 연골판 파열, 꼭 수술해야 하나요?

연골판 최대한 살리고 연골·근육까지 고려

외래에서 환자들이 MRI 사진을 들고 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선생님, MRI에서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꼭 수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MRI에서 연골판 파열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연골판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파열이 있는가'보다 '어떤 파열을, 어떤 무릎에서 발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연골판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위치해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한번 손상된 연골판을 치료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와 활동 정도, 외상 여부, 파열의 위치와 모양, 증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필자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환자의 실제 나이보다 '연골의 나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60대 환자라도 관절연골과 관절 간격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면 연골판을 살리는 치료를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나이가 젊더라도 이미 관절연골이 심하게 닳고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골판 파열만 수술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RI에서 연골판 파열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약물치료와 운동치료 등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필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다.

MRI 사진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치료의 목적은 아니다. 환자가 자신의 무릎으로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물론 반대로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파열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찢어진 연골판이 관절 사이에 끼면서 무릎이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 '잠김 증상'이다. 젊은 환자가 운동이나 사고 후 발생한 외상성 파열 중 봉합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연골판의 뿌리가 끊어지는 '연골판 후방 골기시부 파열', 즉 'Root Tear'이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골판도 뿌리가 끊어지면 체중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적절한 환자에서는 이를 방치하거나 단순히 잘라내기보다 뿌리를 다시 고정해 연골판의 기능을 살리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연골판은 잘라낸 만큼 원래의 정상적인 연골판으로 다시 자라나는 조직이 아니다. 남아 있는 연골판의 양이 줄어들면 관절에 전달되는 압력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진행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연골판 치료의 중요한 원칙은 '가능하면 자르지 말고 살리는 것'이다. 필자 역시 연골판 부분절제술의 적응증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봉합할 수 없는 연골판 조직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며 지속적인 기계적 증상을 일으키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필자에게 연골판 절제술은 연골판을 보존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일종의 '구제술'에 가깝다.

증상·활동량·연골 나이 등 살펴 치료

퇴행성·수평파열 시 비수술적 치료 권해

절제술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 시행

반대로 수술이 필요하면서 봉합할 수 있는 파열이라면 가능한 한 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연골 상태, 파열의 형태와 위치, 조직의 질, 다리의 정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봉합술의 결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수술 시 파열 부위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변 조직을 정리하고 혈액과 치유 인자가 봉합 부위에 도달하도록 돕는 여러 생물학적 보강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골판을 잘 봉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술 후 재활이다. 봉합한 연골판이 붙기 전 무리하게 체중을 싣거나 깊게 무릎을 구부리면 봉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파열의 위치와 봉합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 목발을 사용하고 체중부하와 무릎의 굽힘을 제한해야 할 수 있다. 이후 단계적으로 움직임과 근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잘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릎을 보호하는 것은 연골판과 연골만이 아니다. 잘 발달된 근육 역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골판 파열 치료에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퇴행성·수평파열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반대로 수술이 필요한 파열이라면 가능한 한 연골판을 봉합해 살리고자 하며, 절제술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MRI는 연골판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는 좋은 검사다. 하지만 MRI 사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무릎을 치료해야 한다. 따라서 "MRI에서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꼭 수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연골판은 건드리지 않고, 수술이 필요한 연골판은 가능한 한 살려주는 것. 그리고 그 연골판과 함께 앞으로 수십 년을 사용해야 할 연골과 근육까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연골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김상효
거인병원 관절센터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0622-중-155142호

세워라 척추! 걸어라 관절! 거인처럼!!



거인병원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⑮

재가불자가 나아가야 하는 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18년 동안 캄보디아 국경마을에서 외길을 걸으며 세운 수레꾼 초등학교·중학교·공예학교 전경.

캄보디아에는 약 1만명 남짓한 한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프놈펜에 살고 있으며, 시엠립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국 개신교 선교 인력입니다. 정식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파송한 장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25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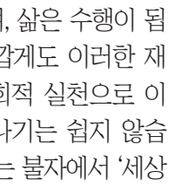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의료봉사를 하고 가난한 주민들을 돕습니다. 직업훈련원도 운영하며 젊은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칩니다. 캄보디아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런 한국인들의 활동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NGO 활동은 어떠할까요? 캄보디아는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불교 국가에서 장기간 머물며 활동하는 한국 스님과 불교계 NGO 관계자의 수는 대략 50여 명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느 종교가 더 훌륭한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한국불교는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재가불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가불자는 단순히 '출가하지 않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을 떠나지 않고 일상의 삶터에서 '부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불교에는 자비, 보시, 이타행, 보살행이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바라보는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재가불자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가불자에게는 출가 수행자와는 다른 조건과 힘이 있습니다. 사업가, 의사, 교사, 기술자, 농부, 요리사,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여러 직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가불자의 힘입니다. 세상 속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은 보시가 되고, 경험은 자비가 되며, 삶은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재가불자의 힘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절에 가는 불자에서 '세상으로 가는 불자'로, 법문을 듣는 불자에서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불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불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그 두 손을 다시 펴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모았던 두 손은 세상으로 나아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 다시 펴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재가불자가 세속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인지도 모릅니다.

순수 재가불자 NGO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바로 이러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캄보디아 최북단 국경마을에서 18년째 한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⑧ 학생으로 화현하신 부처님들과 함께

'무불교' 청년 불성 꽃피우도록 이끌 터

지난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다녀간 25만명 중 20·30대가 73%,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이가 48%였다고 합니다. 불교 굿즈 앞에 줄 서고 불경 리믹스에 손 흔들던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를 무종교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없지만 불교에 내적 친밀감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 '무불교'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無)는 부정이 아닙니다. '불자'라는 내적 구속감·소속감보다는 불교의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불자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를 반가워하고 사찰 예절을 따라 배우는 동아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스스로를 종교에 가두지 않으면서도 불교를 좋아하는 이들 이야말로, 어쩌면 더 깊은 불자의 씨앗을 품은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예술대학은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학과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술학부는 학기마다 전시 준비에 밤을 새웁니다. 연극학부는 무대를 위해 연습에 땀 흘리고, 영화영상학과는 촬영과 편집에 젊음을 바칩니다. 스포츠문화학과는 훈련과 합숙을 거쳐 실전 경기를 치르고, 한국음악과는 전통을 계승하며 소리에 혼을 담아냅니다. 학과마다 삶의 모습도 이토록 다르니, 한자리에 모이는 일 자체가 매번 작은 무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혼신의 노력 꿈 키우는 예술대학 학생들

부처의 성품 지녔으나 불자임을 모를 뿐

이들 불성 드러내도록 함께 걸어가려 해

진선미는 이 다양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보자는 뜻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꿈꾸며 세워진 동아리입니다. 한마음으로 삼귀의를 부르고 반야심경을 외는 동안에는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초대로 작품과 공연, 영상과 경기를 접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치 학생으로 화현하신 부처님을 마주하기라도 한 듯, 그들을 향해 찬탄과 축원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예술의 길이 지닌 끝없는 불안과 좌절을 거듭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최고의 마음을 담아내야 하는 현실과 AI의 발전이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한 명상코칭 연구를 이어 온 저는 언젠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과 AI가 그린 부처님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돌아온 것은 물음이었습니다. 스님이시라면 프로그램이 그려낸 부처님과 몇 해를 두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려낸 부처님 가운데, 어느 쪽에 공경과 예배를 올리고 싶으시냐고. 마치 조주 선사의 물음을 마주한 듯했습니다. 답을 들으려는 질문에, 도리어 마음으로 되물어왔기 때문입니다. '무불교'라 부르기에는, 이들은 이미 마음의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부처임을 미처 알지 못하듯, 이들 역시 자신이 불자임을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도법사로서 이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 모든 인연이 학교와 건학위원회, 진선미를 아껴주시는 여러 어른들의 보살핌 덕분임을 새깁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아직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지 않는 청년들의 불성이 저마다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학생 전법과 부처님의 마음이 진선미 회원들의 손끝으로 이 세상에 다시 그려지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은산 스님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지도법사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㉙ 부처님의 사투리

부처님도 사투리를 썼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인터넷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출구가 보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 부처님은 사투리를 썼다는 것. 쓴 정도를 넘어 사투리 옹호자였다는 것. 역시 부처님 최고. ('비전문가의 특권(?)'에 기대어 하는 이야기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가장 미천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했다. 주로 활동한 곳인 갠지스강 중류의 마가다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가다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인도 사회를 지배하던 바라문교의 성전 〈베다〉를 적는 베다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교화를 펼칠 때도 그 지역의 말을 사용하게 했다. 불교가 세계 종교, 보편 종교가 된 배경이기도 하다.

월정사의 적광전 앞에는 팔각구층석탑(국보)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공양을 올리는 석조보살좌상(국보)이 있다. '약왕보살'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양식의 보살상이라 한다. 비유컨대, 한국불교만의 문화적 사투리다.

손영자 작가



월정사 적광전.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종법은 승가 지키는 울타리

현불논단



덕안 스님
전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오면 종단의 공기가 달라진다. 때로는 세속 정치의 선거판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경쟁이 과열된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승적과 수계 이력까지 다시 끄집어내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나 역시 출가와 수계의 기록이 단순하지 않다. 스무 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긴 치료와 요양을 거쳐 스물세 살이던 1996년 해인사로 다시 출가했다. 사미계를 받고 선방을 다녔지만 비구계는 도반들보다 늦은 2003년에 받았다. 그 과정에서 승랍도 실제 출가 시점보다 늦게 적용됐다가 이후 종법이 바뀌면서 다시 정리됐다. 승적에 남은 숫자 몇 줄만으로는 그사이 한 수행자가 지나온 시간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다시 묻게 된다. 종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종법은 승가의 청정을 지키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의 약속이다. 승가는 본래 화합중(和合衆)이라 불렸다. 문제가 생기면 대중이 함께 살피고, 허물이 드러나면 참회하며, 다시 화합해 수행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승가의 원리였다. 율장의 목적은 허물을 들춰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 승가의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는 데 있다. 오늘의 종법도 그래야 한다. 선거철마다 과거의 기록을 들춰 상대를 흔드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법의 본래 목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의혹 검증과 정치적 공격은 구별돼야
종법 따라 정리된 사안 존중도 필요해
선거 과정서 청정·화합·대중공의 보여야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과 정치적 공격은 구별돼야 한다. 당시 제도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당시 규정과 절차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고, 이미 종법에 따라 정리된 사안이라면 그 결정 또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한국불교가 어렵게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가는 시기다. 지난 몇 년 동안 불교가 현대인의 삶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어렵게 만들어온 변화가 선거철의 과열과 내부 공방으로 후퇴한다면 특정 후보를 넘어 종단 전체가 감당해야 할 신뢰의 손실이 된다.

승가까지 세속 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다.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승가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선거 역시 대중공의를 모아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모시는 과정이어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라면 누가 수행자의 품격과 종단을 이끌 원력을 갖추었는지, 누가 대중공의를 모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법은 사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법은 상대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승가를 지키는 울타리여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화합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선거 과정 자체에서 청정과 화합, 대중공의라는 승가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한국불교의 다음 100년이다. 그 첫걸음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승가의 정신을 오늘의 제도와 선거 과정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에 대한 무감각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입추가 지나고 나니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극한 폭염이 한발 물러선 덕분이다. 더위와 함께 극심한 가뭄도 해갈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 참 다행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가을의 풍요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들이 꼬리를 물고 대화의 장에 오를 만하지만, 화제는 주로 억지로 꾸미거나 과장해서 눈길을 끄는 이야기들로 한정되고 만다.

인공지능(AI)의 일상 속 비중과 역할이 커지면서 단골 주제로 과장된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는다. 머지않아 모든 면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이 일자리를 뺏길 뿐만 아니라 삶과 사회의 주도권도 넘겨줄 수 있다는 공포가 전제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산업에 매진해야 하고, 그러려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데이터센터를 곳곳에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석탄과 석유, 원자핵을 이용하는 발전소도 계속해서 건설해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흐름을 주도하다 보니, 다른 색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칫 소외되거나 세상 흐름을 모르는 얼간이라는 비난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정말 그런 것일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공포 섞인 일방적인 방향성은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인공지능은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과 맺는 관계 측면에서도 이전과

인류와 지구 위한 AI 관심과 인력 필요
AI 관련 불안과 편승 등이 무감각 불러
여실지견의 지혜와 실천, 연대 펼쳐지길

다른 양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모두 인간 모두와 지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극히 일부의 세계적인 디지털 기업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마저 종국에는 인공지능이 부리는 마술에 휘둘려 노예처럼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서 서로 다른 차원과 의미를 지니지만, 그 둘은 인간의 무감각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우리는 극한 폭염과 호우, 폭설을 경험하면서도, 기후위기가 없다고 거리낌없이 거짓말을 하는 트럼프 같은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의 강변에 기대서 일상의 불안감을 다스리거나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어느새 크게 들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과장된 열망과 편승도 인간의 무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됐고, 그것이 우리 삶과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지녀야 하는지는 점차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런 무감각은 두 가지 점에서 위험하다. 하나는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사유(無思惟)의 위험이다. 깨달음을 얻는 붓다는 자신의 첫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지혜를 가르쳤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실천하는 인간과 그들 사이의 연대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함께 맞는 이 땅의 가을이 그런 사유와 연대, 실천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社 說

종단의 절반, 이제 함께 가야 한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강화와 종단 운영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종책제안서를 내놓았다.

이번 제안에는 출가자 감소와 포교 환경의 변화, 종단 구성원의 고령화 등 한국불교가 당면한 현실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담겨 있다. 수행과 교육, 포교, 복지,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비구니 스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종단 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총무원 행정기구 참여 확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석수 확대, 종단 차원의 승려복지체계 구축, 선학원과의 관계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간 거론됐던 '비구니부'를 신설하는 방식보다 현재 총무원 주요 보직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구본사 선거인단의 일정 비율을 비구니로 구성하고, 종단 및 대외협력 관련 위원회에도 비구니 참여 원칙을 적용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비구니 스님 역량 끌어낼 종책제안서
차기 집행부, 새 미래 여는 첫걸음이길

비구니 스님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비구니부 신설과 참종권 확대는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비구니부 신설을 종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대신 총무원 문화부장에 비구니 스님을 임명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종단 행정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사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종단의 제도적 문턱은 여전히 높다. 조계종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주요 직책에서 자격 요건이 '비구'로 제한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올해 3월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는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바라보는 종단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종헌·종법은 종단의 근간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한 검토'라는 명분이 현상 유지를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가 변하고 승가의 구성과 역할이 달라졌다면 제도 역시 그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국비구니회의 종책 제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비구니 스님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가 당선되든 약속한 종책을 실질적인 제도와 행정으로 이행해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참종권 확대는 종단이 가진 인적 역량을 온전히 활용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는 한국불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제38대 조계종 집행부가 그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8월 26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8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8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2026
영캠프
번뇌를 씻어내다
청춘,
YOUNG CAMP
일시
2026
09.17
목요일 17시
장소
동국대학교
대 운 동 장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QR코드